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95호 【루계 제25969호】 주체107(2018)년 4월 5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가 답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나는 당신이 내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축전을 보내준데 대해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쌍방의 공동의 귀중한 재부입니다.

나는 중조관계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며 당신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끊임없이 계승해나가며 중조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추동하며 두 나라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더 좋은 행복을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귀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2018년 3월 23일

베이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신 소식을 3월 31일과 4월 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바흐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토마스 바흐위원장의 조선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토마스 바흐위원장은 자기들의 이번 평양방문목적은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성공적인 올림픽경기대회로 진행되도록 커다란 공헌을 하신 김정은령도자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하기 위해서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사이에 존재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계속 좋게 발전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일행과 함께 축구경기를 보시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로씨야의 따쓰통신, 인떼르팍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 렌떼웨TV방송, 인터네트신문 렌따. 루, 인터네트통신들인 에르베까, 가제따. 루, 인터네트홈페지들인 《뻬뜨리오찌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국신문 《가디언》, 도이췰란드신문들인 《차이트》, 《디 웰트》,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미국의 AP통신, 베네수엘라의 텔레쑤르TV방송과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우와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 에스빠냐준비위원회가 3월 26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에스빠냐인민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서 빅또르 마누엘 루까스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3월 27일 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슬란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 및 친선협회 서기장 욘 아르니 할도르쏜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에 즈음하여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공사성과 계속 확대

순천린비료공장건설장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순천린비료공장 건설자들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공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을 다그치고 촉매생산기지와 린비료공장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건완비하여야 합니다.》

정초부터 련속공격전을 드세게 벌려온 이들은 1.4분기기간 기본생산공정의 7개 건축대상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원료배합장과 급수탑, 린산 및 린안비료생산장의 기초굴착과제를 빛나게 결속하였다.

이미 수십만㎥의 토량처리와 구조물해체, 지대정리과제를 해제낀 건설자들은 나머지 건축대상들의 기초굴착공사도 80% 계선을 돌파한데 이어 충천한 기세로 련일 자랑찬 로력적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건설지휘부에서는 구조물들의 해체와 토량처리, 지대정리를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면서 생산구역에 대한 기초굴착과 우수망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고있다.

정치부과에서는 대중을 새로운 위훈과 기적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직관선전물들과 힘있는 구호들을 게시하고 방송선전과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참신하게 벌리도록 하여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로 온 건설장을 들었다놓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뜻을 높이 받들고 공사에 참가한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 기술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완공의 날을 하루빨리 앞당길 일념안고 대상건설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건설건재공업성아래 여러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만리마를 탄 기세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은산화력발전건설사업소와 강선산업건설사업소 등의 건설자들은 짧은 기간에 1만 5천여㎥의 기초굴착과제를 해제끼고 원료배합장과 급수탑기초굴착을 성과적으로 결속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이들은 황린생산장에 대한 기초굴착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면서 총공세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로력적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순천린비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근 1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린산 및 린안비료생산장의 기초굴착과제를 완수하는 눈부신 혁신을 일으키였다. 이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종합조종실, 급수뽐프장을 비롯한 10여개 대상공사에서 계속 새로운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보람한 건설투쟁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고있는 평안남도의 돌격대원들도 맡은 대상의 기초굴착전투에서 날에날마다 높은 공사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연유와 자재보장을 맡은 일군들이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멀고 험한 수천리길을 쉼없이 오가며 린비료공장건설을 다그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국가계획위원회와 화학공업성, 기계공업성과 륙해운성, 림업성과 재정성, 국가자원개발성과 국토환경보호성 등에서 많은 량의 설비,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대상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와 룡성기계련합기업소, 대동강전기공장과 안주뽐프공장, 평양326전선공장, 평양전동기공장과 평천부재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을 비롯하여 수많은 단위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대상설비생산을 다그치고 성의있는 지원사업으로 건설자들의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하여 1.4분기기간 전체 공사장적으로 14만여㎥의 토량처리와 구조물해체, 근 3만㎥의 기초굴착과제가 수행되고 기본생산공정의 4개 주요대상에 대한 기초굴착공사가 성과적으로 완수되는 로력적위훈이 창조되였다.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설비리용률을 부쩍 높여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다그치기 위한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공사장적인 기공구전시회를 특색있게 조직하고 총화평가사업을 의의있게 하여 모든 단위들이 더 좋은 기공구들을 창안제작함으로써 공사의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힘껏 떠밀어주고있다.

지금 이곳 전체 일군들과 건설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비약의 만리마를 타고 질풍같이 내달림으로써 우리 당에 완공의 보고, 승리의 보고를 삼가 드릴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계속 총돌격, 총매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섭

삼지연군꾸리기 적극 지원

전국각지에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인 백두산지구를 혁명의 성지답게 최상의 수준에서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잘 꾸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삼지연군을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시와 평안남도, 함경북도, 황해북도, 량강도를 비롯한 각 도와 많은 시, 군들에서 공사자재와 기공구, 생활필수품을 성의껏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주고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과 정무원들이 삼지연군꾸리기를 당에서 정해준 기간내에 기어이 끝내야 한다는 투철한 각오를 안고 건설공사를 다그쳐 끝내는데 필요한 자재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고있다.

얼마전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계획위원회, 금속공업성에서는 삼지연군꾸리기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어 많은 지원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건설장에 보내주었으며 그밖의 성, 중앙기관들에서도 많은 물자들을 삼지연군꾸리기에 지원하였다. 특히 체신성의 책임일군들은 수시로 건설장을 찾아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어 맡은 대상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도록 하고있다.

체육성과 교육위원회, 로동성에서도 성의껏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보내줌으로써 건설자들의 전투적사기를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여러 단위들에서 삼지연군꾸리기에 동원된 건설자들을 돕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고 많은 지원물자들을 보내주고있다.

평양철도국,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김형직군안의 기관, 기업소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에서 불붙는 증산투쟁을 벌려 마련한 설비와 자재들을 보내주어 혁명의 성지를 꾸리는 성스럽고 보람한 투쟁에 떨쳐나선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도 애국의 마음을 안고 삼지연군꾸리기에 순결한 량심을 바치고있다.

전국의 청년동맹조직들에서도 일군들과 청년동맹원들이 백두산지구를 더 잘 꾸리는데 적은 힘이나마 바칠 일념밑에 많은 지원물자들을 가지고 건설장으로 달려와 돌격대원들에게 안겨주고 일도 함께 하면서 구슬땀을 바쳐가고있다.

날이 갈에 따라 높아가는 삼지연군꾸리기에 대한 지원열풍은 216사단 건설자들의 투쟁열의를 비상히 고조시키고있다.

현지보도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물동을 실어나르기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있다.

—평양조차장역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더 많은 통나무를

강원도림업관리국에서

강원도림업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군민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꾸리기와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건설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

림업관리국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의 일군들은 림산사업소들과 경목생산사업소들을 맡고 내려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산판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생산조직과 지휘를 잘해나가고있다.

관리국아래 림산사업소들과 경목생산사업소들에서는 통나무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넉넉히 보장하고 산지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생활조건보장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줄 통나무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판교림산사업소에서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나무베기를 앞세우고 운반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여 베여놓은 나무들을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필요한 통나무를 제때에 생산하여 보내주고있다.

세포경목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한팔들에 보낼 통밥나무생산을 적극 내밀면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보내줄 통나무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은 쇠바줄을 비롯한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을 예견성있게 확보하여 통나무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안변림산사업소에서도 자강력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자동차와 트락또르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통나무생산을 부쩍 높이고있다.

림업관리국아래 다른 림산, 경목생산사업소의 로동자들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려 경쟁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관리국의 일군들과 통나무생산자들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과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통나무를 생산보장하기 위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현지보도반

벼모판씨뿌리기에 힘을 집중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어

평안북도에서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 벼모판씨뿌리기전투가 마지막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벼모판씨뿌리기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하고 모든 농촌들에서 물보장을 앞세우면서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도록 경제조직사업과 기술적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한개 시, 군씩 맡고 내려가 협동농장, 작업반포전들을 밟으면서 벼모판씨뿌리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도록 기술적지도에 힘을 넣었다.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모든 선전선동력량과 수단들을 벼모판씨뿌리기전투가 벌어지는 포전으로 옮기고 화선식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농업근로자들을 씨뿌리기전투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벼모판씨뿌리기에서는 룡천군이 앞시나갔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벼모판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술적지도에 힘을 넣었다.

군에서는 농장과 농장, 작업반과 작업반호상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벼모판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신암, 장산, 산두협동농장을 비롯한 평도엽적단위들이 벼모판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였다.

운전군에서는 농사를 잘 지어 올해에 기어이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할 목표를 세우고 벼모판씨뿌리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기술지도를 짜고드는것과 함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씨뿌리기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정주시와 곽산군에서 벼모판씨뿌리기에 힘을 넣었다. 이곳 책임일군들은 정치사업무대를 들끓는 포전으로 옮기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였다.

신의주시와 염주군, 선천군, 동림군, 철산군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벼모판씨뿌리기성과를 확대해나갔다.

특파기자 송창윤

매일 전투계획 넘쳐 수행

황해북도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의 일군들이 올해 농사차비에서 성과를 거둔 기세로 벼모판씨뿌리기를 과학적으로 해나가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정치사업의 무대를 포전으로 옮기고 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사업에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사리원시, 장풍군, 연산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 나간 농업정책해설선전대원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전투적사기를 고조시켜 매일 전투계획을 넘쳐 수행하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데 맞게 송림시 서송협동농장에서 벼모판씨뿌리기와 관련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도, 시, 군일군들은 협동벌에 달려나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농업근로자들을 씨뿌리기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금천군, 황주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안고 씨뿌리기전투에서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올해농사를 잘 지으려면 모판만들기를 앞세우고 씨뿌리기를 적기에 끝내야 한다고 하면서 앞채를 메고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연탄군, 장풍군, 사리원시의 농촌들에서도 올해농사를 잘 지을 일념안고 벼모판씨뿌리기를 실속있게 하고있다. 질좋은 부식토와 모판자재들을 착실히 마련해놓은 이곳 농장들에서는 씨뿌리기전투에 들어가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로 벼모판씨뿌리기전투장들에서는 매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신경섭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 영원하리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노래는 마를줄 모르는 강물의 유유한 흐름과도 같이 전하고 전하여도 끝이 없는 위대한 어버이사랑에 대한 노래이다.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고귀한 삶도 그 사랑에서 꽃펴났고 대를 이어 만발하는 사랑의 화원도 그 은정속에 펼쳐지는 위대한 어버이의 품,

위대한 사랑의 력사, 그 갈피갈피를 더듬으면 뜨거움에 가슴젖고 헌신의 자욱자욱을 되새겨보면 눈물부터 앞서 목메여 찾는 어버이수령님!

일찌기 어버이수령님의 품을 이 세상 전부로 알고 수령님품속에 안겨사는 행복을 끝없이 노래하여온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위대한 수령님의 한품속에 영원히 살리!

바로 이 불타는 열망이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를 천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위대한 태양이신 우리 수령님을 천세만세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결한 사상감정이며 영원한 일편단심이다.

* *

한없이 뜨겁고 웅심깊은 인정미와 소탈한 품성을 지니시고 모든 사람들을 빛나는 삶의 언덕에로 이끌어주시며 인민을 지극히도 사랑해주시고 위해주신 어버이수령님,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하신 혁명이였기에 어버이수령님께 있어서 인민을 위하시는것보다 더 숭고한 리념은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뜨거운 인정미와 한없이 걸박하고 소탈한 품성을 지니시고 인민들을 따뜻이 대해주고 보살펴주시였다. 수령님은 적들앞에서는 백두산호랑이와도 같았지만 전사들과 인민들앞에서는 더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어버이이시였다.》

참된 사랑은 인간의 마음을 덥혀주는 따사로운 요람이며 인간을 완성시켜주는 비옥한 토양이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타고나신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인민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신 우리 수령님,

사랑하는 자식들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것은 부모의 행복이다.

나날이 꽃펴나는 인민들의 살림은 어버이수령님의 더없는 기쁨이였다.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 돌아올 때는 배전에 넘친다 …

지금도 이 흥겨운 노래선률이 울릴 때면 인민의 어버이의 불멸할 모습이 뜨겁게 추억되여 격정을 금치 못하는 우리 인민이다.

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전투를 지휘하는 한 일군으로부터 동해에 물고기가 한벌 쭉 깔렸다는 보고를 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벌 쭉 깔렸단 말이지, 기름은 걱정말고 죽죽 퍼내라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곧바로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였다. 기름문제와 수송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도록 강조하시기 위해서였다.

《떠나갈 땐 빈배로 가지만》하고 그다음에 뭐더라?

전화를 받던 일군은 순간 굳어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너무 기쁘시여 노래를 부르고계시지 않는가.

그때, 그때 배전에 넘치지. …

동해의 와글거리는 물고기떼 어창에 넘치고 선창에 넘쳐 산더미로 솟는 물고기들이 집집마다에 흘러들어 생선국냄새를 풍기는 밥상에 빙 둘러앉을 인민의 모습을 그려보시며 그처럼 행복에 겨워하신 우리 수령님,

정원군 원화협동농장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을 전하고있는 것인가.

자신께서 명예농장원으로 일하시는 농장에서 10년간의 분배몫을 보내여왔다는것을 아시고 그 분배를 고스란히 농장살림에 보태주신 어버이수령님,

문제는 뜨락또르며 련결차, 자동차를 사는데 돈이 좀 모자라는것이였다.

한 일군에게 그 사정을 알려주시면서 나는 돈이 없는데 동무가 빚을 좀 내주시오, 내가 다음해 분배몫에서 봉창하도록 하지라고 하신 우리 수령님!

후날 농장을 참관하고 저금통장에 깃든 사연에 대하여 알게 된 유럽의 한 정치활동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동서고금에 한 나라의 수령이 명예농장원이 되시여 분배몫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고 그 분배돈을 농민들을 위해 쓰시였다는 이야기도 처음 들었다.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수만년이 흘렀지만 이것은 정말 전설같은 이야기이다. 이것은 인민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만이 펼치실수 있는 전설 아닌 전설이다.》

인민의 가슴에 태양의 모습으로 영원한 어버이수령님은 바로 이런분이시였다.

하나를 놓고도 열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찌다 생긴 남방파일도 새 탄광건설을 맡아하고있는 군인들에게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

자신께서 그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인민들에게 기쁨을 안겨줄수 있다면 그러한 고생을 더없는 락으로 생각할것이라고 하시며 무더운 한여름 발에 쥐 붙는지 가늠해보기 위하여 병사들이 신을 솜신발을 신으시고 며칠동안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우리 수령님!

인민에 대한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신 인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의 사랑은 그 폭과 깊이를 잴수 없는 류례없는 정과 열의 세계였다.

인민을 위해 다함없는 정과 열을 바치시였기에 어버이수령님께 있어서 그 인민 한사람한사람이 당하는 피로움보다 더한 고통이 없으시였다.

인민이 당하는 시련을 자신의 한몸으로 막아나서는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시였을뿐이니라 가장 정법한 사람들을 친혈육처럼 귀중히 여기시고 아끼신 바로 여기에 어버이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의 진정한 위대성이 있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우리 인민의 가슴에서 정녕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 끝없이 전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전쟁이 끝난 이듬해 가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피해가 다른 곳보다 큰 서해기슭의 한 마을을 찾으시여 친우들에게 가족을 다 잃은 관리위원장과 마주앉으시였다.

남당이처럼 무거운 정적이 비좁은 방안을 가득 채웠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아무 말씀없이 그의 거칠고 짱짱한 손을 굳게 잡아주시며 그냥 쓰다듬어주시자 그의 입에서는 《흑》 하는 흐느낌이 터졌다.

어버이수령님께서도 무엇인가 위로의 말씀을 하시려고 하였지만 끝내 말문을 떼지 못하시였다. 하도 답답하시여 담배가치를 뽑아드시고 성냥을 그으시였지만 성냥가치는 그이의 손에서 다 타버리고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이제는 떠나시였으면 하는 부관의 조조한 목소리도 벌써 몇번째였다. 하지만 그런 그를 홀로 두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으시였다.

그밤따라 하늘에 달빛이 우련하였다. 한걸음 내짚으시였다가는 말을 올려다보시고 한걸음 내짚으시며 대문곁에 서있는 그를 뒤돌아보시다가 다시 걸음을 멈추신 어버이수령님,

갈길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여기에서 하루밤을 지내야겠다고 하시며 토방에 도로 올라서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부관에게 술이 있으면 한병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이렇게 그와 다시 마주앉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친히 병마개를 따시고 잔 가득히 술을 부으시여 그에게 권하시면서 이럴 때 술 한잔 마시면 아픈 가슴이 좀 풀릴수 있으니 어서 들라고 하시였다.

슬픔을 당하여 홀로 자리에 드는 밤이면 남몰래 베개잇을 적시는 자식의 상처를 어루쓸어주는 어버이의 정과 열이였다.

그 웅심깊고 사려깊은 어버이사랑이 폐부에 흘러들어 그는 잔우에 하염없이 눈물만 떨구었다.

그가 술을 하지 못한다는것을 아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몹시 안타까우신 표정을 지으시며 이번에는 친히 사과를 깎아 그의 손에 쥐여주시였다.

그냥 어깨를 들먹일뿐 그것마저도 들지 못하자 그의 손목을 다정히 잡아흔드시며 그러면 되는가, 내가 내놓은 사과인데 동무가 들어야 내 마음도 좋을게 아닌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신 어버이수령님,

일군들모두가 감격에 목이 메여 뜨거운 눈물을 삼키였다.

한 당원의 고난에 찬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다 들어주시며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의 연덩이를 덜어주시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외진 산촌에서 한밤을 꼬박 새우시였다.

사랑의 력사가 인류의 력사만큼 오래고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무수하다고 하지만 언제 이보다 더 강렬하고 이보다 더 뜨거운 열과 정이 있어본적 있었던가.

만경대의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착취받고 억압받는 이 나라 인민의 고랄을 가슴저리게 체험하시였고 피죽으로 끼니를 에우시는 가난속에서 인민의 때묻는 설음도 당해보신 우리 수령님,

너무도 일찌기 잃으신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혈육들의 최후에서 인간이 당하는 뼈저린 상실도 통감하시고 언두부 하나를 놓고 마주앉으시였다가 헤어지신것이 사랑하는 동생과의 마지막리별이 되어버린 쓰라림도 체험하신 우리 수령님,

천사람이면 천사람, 만사람이면 만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삼가 숙연하게 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어버이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일군들도 그밤을 같이 새웠다.

어찌 그 마을만의 이야기이랴.

어느해인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외국의 한 정객은 자기의 회상록에 이렇게 썼다.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이앞에서 경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김일성주석을 만나뵈온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첫 순간부터 무한한 존경심을 품고 자기 생애에서 그이를 알게 되고 그이를 만나뵈온 행복감을 간직하게 되는것은 주석께서 이룩하신 업적의 위대성에 앞서 그이께서 지니고계시는 비범한 성품이라고 생각한다. …》

어버이수령님을 한번 몸가까이에 모신 외국인의 심정도 이러할진대 오랜 세월 그 품에 안겨 산 우리 인민의 심정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항상 인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신 우리 수령님의 사랑은 전화의 나날 그이께서 밤중에 들리신 한 농가에도 뜨겁게 어려있다.

강계로부터 평양으로 나오시던 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 한 마을가까이에 이르시여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어둠속에 누워있는 벌을 이윽토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산밑에 있는 한 농가를 가리키시며 주인이 있는가 알아보라고 하시였다.

잠간 쉬여갈수 없겠는가고 하는 일군들의 물음에 주인아주머니는 어서 들어와 쉬라고 하며 손님들을 맞을 차비를 서둘렀다. 그런데 그가 방바닥에 넘려자는 아이들을 미처 한쪽으로 밀어놓을새도 없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간 얼마나 고생하였겠는가고 하시면서 장화를 벗어놓으시고 방안에 들어서시는것이였다.

워낙 방안에 켜놓은 등불이 어두운데다가 설마하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기 집에까지 찾아오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주인아주머니는 그저 보통손님을 맞아들이듯 누구나 다 겪은 고생인데요 하고 스스럼없이 말하면서 아래목으로 안내하였다.

일군들이 위미처 초불을 가지고 들어와 불을 켜놓는 순간이였다.

전쟁의 모진 시련을 겪는 나날에 어느 한시인들 잊은적 없던 어버이수령님!

지금 자기와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는분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심을 알아보게 된 주인아주머니는 북받치는 격정에 목이 딱 메여 그저 눈물만 흘리였다.

친쑤들에게 남편을 잃은 가슴아픈 사연과 이부자리도 없고 옷가지 하나 안보이는 가긍한 살림형편…

한가정이 당한 쓰라린 고초를 구석구석 다 헤아려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는 불행을 당한 딸의 집을 찾은 친정아버지의 심정 그대로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며는 피로움을 이겨내기 힘드시여 목단추를 벗겨놓으시고 손으로 문턱을 두드리시며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였다.

세상모르고 잠자는 어린것들을 측은히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잘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아주머니, 얼마간만 참으시오. 우리 저 애들을 아버지 있는 아이들보다 더 의젓하게 키웁시다. 아무렴, 아버지 있는 아이들보다 못하게 길러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렴 더 의젓하게, 더 훌륭하게 키워야지.

이때 아이들 둘이 잠에서 깨여났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무엇이 좀 있으면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라고 이르시였다.

눈을 비비는 처녀애를 안아 파자 봉지앞에 앉혀 파자를 집어주시고 남자아이를 안으셔다가 자신의 외투깃을 헤치시고 포근히 감싸안아주시였으며 아직 잠에서 채 깨여나지 못한 애의 광손에 땅을 한개씩 쥐여주신 어버이수령님,

한쪽에서는 영문을 알길 없는 아이들이 빵과 파자를 맛있게 먹고 한쪽에서는 친정아버지의 품이런듯 목놓아 흐느끼는 그애들의 어머니…

차가 벌써 몇십리를 잘 달리였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점도록 말씀이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이윽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누구에게라없이 물으시였다.

우리 그애들에게 무엇을 주었더라?

어버이수령님께서 어찌 그애들의 손에 빵이며 파자를 하나하나 쥐여주신것을 잊으시였으랴. 아버지 잃은 그 어린것들에게 무엇이건 더 해주지 못한 아픔때문이 아니던가.

평양에 돌아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곧 내각회의를 소집하시고 그 아주머니의 심정 아니 전쟁으로 남편잃은 이 나라 모든 녀인들과 고아들을 위하여 부모잃은 아이들을 국가에서 맡아키울데 대한 력사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세계에 수많이 기록된 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 모든것이 마사지고 불타버린 참혹한 환경속에서도 부모잃은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되여 보호해주고 보살펴준 그런 인민의 어버이가 있었던가.

반만년민족사의 숙원을 안으시고 민족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그날부터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신 우리 수령님의 한생은 동서고금이 알지 못하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의 한평생이였다.

우리 인민모두가 영원히 안겨사는 어버이수령님의 품은 이처럼 한없이 넓고도 뜨거운 인정의 바다였다.

더없이 고결한 인민적성품으로 사람들의 생각까지 속속들이 헤아려주신 어버이수령님,

로동자들을 만나시면 기름묻은 손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농촌에 가시면 밭머리에서 농민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신 우리 수령님,

수천수만의 아들딸들을 품에 안아 정을 주고 넋을 부어주어 보람찬 혁명의 길에 세워주신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로 하여 이 땅이 그리도 후더웁고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꽃펴나는 속에 거창한 일심단결의 대하가 도도히 굽이치는 격동적인 현실이 장엄하게 펼쳐질수 있지 않았던가.

인민에게 영원한 정을 주신 그지없이 위대한 어버이를 과연 누가 진심으로 따르지 않을수 있으랴, 천만년 받들고 모시지 않으랴.

어버이 그 품에 안겨 살아온 우리 인민이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품을 조국으로 알고 수령님의 사랑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행복으로 소중히 간직하고 수령님에 대한 일편단심의 노래를 영원히 높이 부르고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조국에서와 같이 다함없는 수령의 노래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례는 일찌기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날이 그 존엄과 부강을 떨치는 강대한 주체조선의 위용속에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력사,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는 시대의 가장 훌륭한 노래로 끝없이 메아리칠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한없이 고결한 의리의 세계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주은래총리와의 혁명적우애는 세계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숭고한 의리의 세계를 펼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중친선은 두 나라 당과 국가지도자들이 자주 접촉하고 접촉하는 과정에 가장 친근한 동지적관계와 숭고한 혁명적의리에 기초하여 공고발전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주은래총리사이의 마지막상봉은 주체64(1975)년 4월 베이징의 정무병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미전부터 주은래동지는 중병을 앓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만사를 뒤로 미루시고 병문안을 하실 결심을 하시였다. 그런데 주은래동지의 병상태가 위독하여 만나보실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은래총리와의 상봉의 시각을 안타까이 기다리시였다.

마침내 주은래동지의 병이 좀 차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원천리하고 길을 떠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주은래총리는 큰 수술을 받고난 뒤어서 운신을 하기 힘들었지만 의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옷도 갈아입고 퉁퉁 부은 발을 천신에 끼면서까지 외교관에게 어긋나지 않게 갖출것은 다 갖추고 수령님을 정중히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고에 시달려 몰라보게 상한 주은래총리를 보시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시여 그를 부둥켜안으신채 아무 말씀도 못하시였다. 수척해질대로 수척해진 모습을 볼수록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냥 그의 등을 어루쓸어주실뿐이였다.

주은래총리도 우리 수령님을 붙안고 격정에 겨워 미처 말문을 떼지 못하였다.

감동없이는 볼수 없는 그 눈물겨운 상봉앞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모두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은래총리와 혁명동지의 정을 주고받으시며 오랜 시간 뜻깊은 담화를 하시였다.

수술이 잘됐네 대하여 기뻐하시며 거듭 따뜻한 고무를 주시는 우리 수령님,

주석동지를 다시는 만나보지 못할줄 알았는데 이처럼 찾아주시여 대단히 감사하다고, 일부러 시간을 내시여 먼길을 오신 주석동지께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목메여 말하는 주은래총리의 눈굽에서는 뜨거운것이 줄곧 흘러내렸다. …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작별의 시각이 왔다. 주은래총리는 역이 막힌 어조로 앞으로 주석동지를 다시 만나지 못할것 같다고 외우며 수령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이렇게 당부하였다.

《그동안 국제공산주의운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김일성동지의 원칙적인 립장과 올바른 가르치심이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였습니다. 세계혁명문제는 앞으로도 세계정치의 공인된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지도를 받아야만 옳게 해결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일성동지께서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세계혁명을 이끌어주실것을 바랍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와 따뜻이 포옹하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나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부디 안녕히 가십시오.》

우리 수령님께서와 주은래총리와의 마지막상봉이였다.

참으로 주은래총리를 혁명동지로, 친근한 전우로, 가장 가까운 벗으로 생각하신 우리 수령님의 그 숭고한 혁명적의리의 세계는 만사람을 감동시키며 세계정치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져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포평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리 진 명 찍음

김 영 남 동 지 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다까르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막 키 쌀 각 하

나는 귀국의 독립 58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세네갈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호상리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신이 건강할것과 귀국인민을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4월 4일 평 양

까히라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브둘 파타흐 알 씨씨각하

나는 당신이 에짚트아랍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변함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4월 4일 평 양

조국보위와 청춘시절

조국이 굳건하자면 방선이 철벽이여야 한다. 지구상에 침략과 전쟁을 생존방식으로 하는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원쑤들의 침략책동에 언제나 대처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오늘 어머니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떠받들려 마음껏 배우며 행복하게 자라고있는 우리 학생청년들은 조국보위를 신성한 의무로, 청춘의 영예로 여기고있다.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있기에 우리 혁명무력이 강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가 불패이며 우리 조국이 끝없이 륭성번영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우리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보위를 가장 신성한 의무로,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조국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에 용약 떨쳐나서야 합니다.》

사람은 청춘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데 따라 한생을 보람있게 살수도 있고 헛되게 살수도 있다. 꿈이 많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이 용솟음치는 청춘시절에 위훈을 세울 보람찬 일터는 많다. 하지만 혁명의 총을 잡고 조국보위초소에 서는것보다 더 긍지높은 삶은 없다.

그러면 왜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에 바치는것이 최대의 영예와 보람으로 되는가.

—그것은 우선 조국보위초소에 서는것이 어머니당과 조국앞에 지닌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길이기때문이다.

지금 많은 나라 청년들속에서는 군사복무기피현상이 보편적인 풍조로 되고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자기 나라가 진정한 삶의 보금자리로 간직되지 못하였기때문이다. 태여난 나라는 있지만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지켜야 할 조국이 없는 그런 청년들처럼 불행한 청년들은 없을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후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꽃피워주고 있다.

우리 청년들은 누구나 다 당과 사회주의조국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자라났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첫날부터 우리 청년들이 알며 모르며 받아안은 사랑과 배려는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우리 당과 조국은 제국주의반동들의 전대미문의 침략책동과 제재압박책동으로 하여 최악의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준엄한 나날에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행복한 웃음과 창창한 미래를 지켜 모든것을 다하여왔다.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우리 나라에서 당과 국가가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다 후대들을 위한것이며 력사의 온갖 돌풍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꿋꿋이 고수하고 더욱 높이 추켜들고나가는것도 후대들의 보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키워주고 내세워주며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과 조국을 결사보위하는것은 의무이기 전에 량심이고 도리이다.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조국은 곧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품이다. 세상에 정치가들은 많지만 우리 원수님처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끝없이 사랑하며 열과 정을 다해 품어주고 위해주시는 친근한 령도자, 자애로운 어버이는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청년들의 행복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이 있다.

조국보위초소에서 청춘을 빛내이는 청년들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더욱 각별하다. 초소들을 찾으실 때마다 친부모의 심정으로 병사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헤아리시고 그들의 위훈도 값높이 평가하시며 장래까지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다심한 사랑은 조국의 천리방선 그 어디에나 뜨겁게 어려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앞에서 처음으로 기념사진을 함께 찍으신 주인공들도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위훈을 떨쳐온 만키복무군인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보위에 한몸바친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우대하도록 해주시고 그들이 군사복무의 나날처럼 한생을 빛나게 살도록 걸음걸음 보살피며 이끌어주신다.

위대한 사랑과 믿음은 청년들의 애국충정의 열원이다. 우리 청년들이 귀중한 청춘시절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결사옹위하고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군사복무로 빛내이는것은 받아안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고 한없이 은혜로운 어머니품을 지키려는 한결같은 지향의 발현이다.

—그것은 또한 인민군대가 청년들에게 있어서 한생을 가장 값있게 살수 있게 하는 더없이 훌륭한 혁명대학이기때문이다.

청춘시절에 형성된 세계관과 생활방식, 투쟁기풍은 사람의 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청춘시절에 어떤 교육교양을 받는가 하는데 따라 누구는 한생을 빛나게 사는가 하면 누구는 인생을 무의미하고 수치스럽게 흘려보낸다.

우리 인민군대는 단순히 총을 잡고 적과 싸우는 무장집단이 아니다. 인민군대는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인간완성의 학교이다. 우리 사회에서 혁명정신의 숭고성에 있어서나 조직성과 규률성, 단결력과 투쟁력, 생활기풍에 있어서 인민군대를 따를 집단은 없다. 인민군대에 차넘치는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적동지애의 미풍과 헌신적인 원민기풍은 청년들을 혁명적이고 건전한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는 자양분이며 강도높은 전투훈련은 그들을 육체적으로 단련시키고 의지를 더욱 억세게 하여주는 과정으로 된다.

청년들은 계급투쟁의 전초선인 조국보위초소에서 사회주의조국의 귀중함을 뼈에 새기게 되며 조국이 부른다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참된 인간으로 자라나게 된다. 서슴없이 자욱으로 수령결사옹위의 길을 택한 길영조영웅, 위기일발의 순간에 동지들을 구원하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김광철영웅을 비롯하여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애국충신들도 인민군대에서 수많이 배출되였다. 오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전구들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도 다름아닌 인민군대이며 사회의 모든 부문, 단위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는 핵심들도 병사시절의 그 정신, 그 본때, 그 기질로 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 애국의 길을 따라 한생을 정보로 걸어나가는 제대군인들이다. 참으로 인민군대야말로 청년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불굴의 혁명전사로, 영웅으로 키우는 세상에 둘도 없는 훌륭한 혁명대학이다.

청춘시절을 조국보위에 바치는것을 최대의 애국으로, 가장 큰 영예와 보람으로 여기고있는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어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며 주체혁명의 전도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리 강 호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동력기지에 나래치는 혁신의 기상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당의 명도따라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1.4분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뜻깊은 4월에도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열생산직장들과 타빈직장, 전기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전투장마다에서 이곳 전력생산자들이 조선로동계급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며 매일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모든 생산자들이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수 있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여 매달 높이 세운 전력생산계획을 무조건 제기일에 완수하기 위한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심장으로 자각한 일군들이 한개 단위씩 맡고 내려가 생산현장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면서 로동자들과 함께 불꽃튀는 증산투쟁을 벌리고있다.

11호, 2호, 3호보이라와 2호, 6호, 7호타빈발전기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집단주의위력으로 1.4분기계획수행에서 혁신자의 자랑찬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였다.

이들의 모범을 따라 1호, 4호, 5호보이라와 1호, 4호타빈발전기의 로동자들이 사회주의증산경쟁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설비마다 만부하를 걸었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넘쳐 이들은 더 높은 증산목표를 내걸고 창조적지혜와 혁신의 구슬땀을 다 바쳐가고있다. 6호, 8호, 9호보이라와 5호타빈발전기의 생산자들도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며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직장, 작업반들사이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속에 사회주의증산경쟁도표들에 비약의 만리마들이 앞을 다투어 날아오른다.

정초부터 계획수행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인 열생산1, 2, 3직장의 로동자들이 증산돌격전에 더욱 드센 박차를 가한다.

열생산1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보이라가동대수를 늘이고 증기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다. 열생산2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수압대상물과 미분화계통에 대한 정비보수를 질적으로 진행할 때 열생산3직장의 전투원들은 물공급과 제처리능력을 훨씬 높여 보이라들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증산열기로 불도가니마냥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타빈직장과 전기직장도 앞서거니뒤서거니 서로 승부를 다투며 기세좋게 내발린다. 특히 타빈직장의 기능공들이 설비조작을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당당기사들도 두뇌전, 기술전을 힘차게 벌려 랑기기와 랭각수뽐프능력을 훨씬 높임으로써 타빈들의 만부하를 보장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하차직장과 운탄직장의 로동자들은 석탄하차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면서 보이라들에 석탄을 제때에 보장해주고있다.

공무직장, 소재직장, 자력갱생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도 자체의 힘으로 많은 부속과 자재들을 생산보장하여 발전설비들의 효률을 높이는데 이바지해나가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낀 일념안고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전력생산성과는 더욱 확대되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종훈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글지의 동력기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다.

전력생산으로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억세게 받들어온 이곳 련합기업소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순간의 동요나 주저도 없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과감히 뚫고나가며 완강한 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생산자대중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대를 이어 빛내이며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이곳 참모부에서는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고있다.

일군들은 한개 단위씩 맡고 현장을 타고앉아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어깨를 들이밀며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불꽃튀는 전력생산투쟁을 벌리고있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드는데 증산의 방도가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2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안고 발전설비들에 대한 엄간점검과 순회점검을 더욱 깐지게 하고있다. 이들은 설비관리에 필요한 각종 공구들을 빠짐없이 갖추어놓고 예방보수대책을 철저히 세우면서 발전기들의 만부하를 책임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청년직장과 4직장에서는 발전설비들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잘 운영해나가고있다.

특히 모든 조작공, 운전공들이 담당기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보이라계통에 대한 급수 및 공기조절과 진공계통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여 열손실을 극력 줄이고 연소효률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3직장의 로동자들도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대호상간 련계를 밀접히 하면서 한kW의 전력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고있다.

2호와 3호, 5호와 9호기의 전력생산자들이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4호와 6호, 10호기의 기술자, 기능공들도 집단주의위력으로 매일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발전설비들에 대한 대보수전투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참모부에서는 과학적인 타산밑에 대보수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우면서 짧은 기간에 대보수과제를 질적으로 끝낼수 있도록 전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보수직장들과 모든 보장단위들의 로동계급도 한사람같이 떨쳐나 대보수를 제기일에 성과적으로 끝내기 위한 투쟁을 치렬하게 벌리고있다.

특히 보이라와 타빈보수를 맡은 로동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발전설비보수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8호기대보수가 마감단계에서 다그쳐지고있다.

하차직장과 운탄을 맡은 직장에서 집단적투쟁을 벌려 보이라들에 대한 연료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자력갱생직장과 소재직장, 주강직장을 비롯한 단위들에서도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최대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면서 발전설비들의 관리운영과 보수에 필요한 부속품,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고있다.

지금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더 높은 전력생산성과를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불같은 열의에 넘쳐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명춘길

현지보도 증산의 불바람

순천화력발전소에서

여기는 전력증산으로 들끓는 순천화력발전소 전투현장이다.

풍풍뭉게 피여오르는 흰 연기, 웅— 웅— 기운차게 돌아가는 발전기들의 동음, 서로 키돋음하는 경쟁도표판의 붉은 줄들…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타오르는 전투장을 배경으로 더 높은 전력증산성과로 조국의 륭성번영에 창담게 이바지해나갈 이곳 로동계급의 불타는 맹세가 담긴 급발들이 한눈에 안겨든다. 경제선동의 힘찬 북소리가 전투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킨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터마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혁명적기상이 세차게 나래친다.

석탄을 무드기 싣고 서서히 들어서는 화물렬차와 자동차들, 웅을 쓰며 하차작업을 다그치는 삼차들, 선별공정에서 올리는 만부하의 동음…

전력증산으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해갈 불타는 일념이 어려서인가 전력생산기지가 세차게 끓는다. 그중에서도 전력생산의 중요한 몫을 맡은 열생산직장에서 공격전의 불바람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친다.

하차직장으로부터 벨트콘베아를 타고 흘러온 질좋은 석탄이 저장통들에 쏟아져내린다.

송풍기, 배풍기들이 만부하로 돌아가고 육중한 보이라들이 거센 열기를 내뿜는 속에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한마음되여 일손을 다그친다.

《송풍량, 석탄의 미분상태가 좋다. 증기압력 정상!》

2교대장 김송식동무앞으로 보이라들의 가동상태를 알리는 보고가 련이어 들어온다.

생산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던 직장장 오덕수동무가 조작반의 계기들을 주의깊게 살핀다.

각종 신호등들이 깜박이는 속에 모든 계기판의 바늘들이 정상상태를 가리킨다.

《미분탄공급량을 증가하라. 송풍기의 회전수를 높이라.》

석탄의 질과 변화되는 생산조건에 맞게 새로운 지령이 떨어진다.

1.4분기계획수행에 크게 기여한 조작공들이 해당 설비들을 숙련된 솜씨로 조종한다.

모든 운전공들이 책임성을 높여가며 보이라들에 사소한 이상요소가 나타날세라 침착하게 구석구석 살피며 순회점검을 짠지게 해나간다.

전투장한복에서는 홍성준, 리성영동무를 비롯한 전공작업반과 보수작업반의 전투원들이 미분탄급탄기들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에 드센 박차를 가한다.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순간의 주저나 탐보도 모르고 위훈창조의 한길로만 줄달음치는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의 가슴가슴은 화실마냥 끓어번진다.

《지금 모두가 증기를 제때에 더 많이 생산보장하려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월 전력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고야말겠습니다.》

생산실적을 묻는 우리에게 직장장동무가 확신성있게 말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심천행동으로 전력증산에 이바지하려는 이곳 로동계급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증기생산이 종전보다 오르고 전력생산은 훨씬 늘어나고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기지의 숨결은 더욱 높아간다. 기운차게 돌아가는 발전기들의 우렁찬 동음이 하늘가에 울려퍼진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대고조전투장들에 더 많은 전력을 보내주기 위해 떨쳐나선 이곳 발전소로동계급의 불굴의 기상을 전하며…

최영조

과학기술로 진격의 돌파구를

청천강화력발전소 일군들과 로동계급

청천강화력발전소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전력증산의 동음을 더욱 힘차게 울려가고있다.

높이 세운 1.4분기 전력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3호보이라대보수전투에서 집단적혁신 창조!

발전소구내를 들썩이게 하는 격동적인 경제선동이며 속보판들을 빽 채우며 련이어 나붙는 위훈의 새 소식마다에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곧 과학기술의 위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연료보장조건에 맞게 주요생산공정들인 보이라 및 타빈계통에서 더 많은 증산예비를 찾아내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다. 김창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기술자, 기능공들의 사업조건보장에 언제나 큰 힘을 넣으면서 정치사상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기사장 림광주동무와 공업시험소의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내열세멘트생산기지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여 설비보수에 필요한 내열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생산부기사장과 대보수직장의 기능공들은 짧은 기간에 효률높은 미분탄선별기를 4호보이라에 성과적으로 제작도입함으로써 종전보다 증기생산량을 1.1배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기술일군들인 백은성, 백원건동무들과 리광원동무를 비롯한 자력갱생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불련속주조기를 실정에 맞게 창안제작하며 통합생산 및 경영정보관리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고있다.

열생산직장과 타빈직장, 전기직장과 보수직장들을 비롯한 발전소의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과학기술로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자랑찬 승전보성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울려가고있다.

1.4분기 전력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마지막전투가 치렬하게 벌어질 때였다. 열생산직장에서 운영중에 있던 2호보이라에서 뜻밖에 이상요소가 나타났다. 종전방식대로 보이라를 보수정비하자면 어차피 오랜 시간 생산을 멈추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이라동체를 충분히 식히는데만도 3일은 실히 걸려야 했던것이다.

숨결이 잦아드는 2호보이라앞으로 본체보수작업반의 전투원들이 달려왔다.

이 한몸 깡그리 불태워서라도 보이라의 숨결을 지켜내야 한다.

이런 결사의 각오밑에 서로서로 억세게 틀어잡은 손마다에, 뜨겁게 주고받는 눈빛마다에 용암처럼 뜨거운 애국충정의 열기가 차고넘쳤다.

직장초급일군들인 최응권, 김영빈동무들이 결사전의 앞장에서 이상요소들을 확정하고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수방법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세웠다. 리춘권, 오병섭동무를 비롯한 본체보수작업반의 로동자들이 채식지 않은 보이라속에 뛰여들어 과열기의 불량개소들을 질적으로 퇴치해나갔다. 열생산직장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며 전투장마다에 가슴뜨거운 화폭들을 련이어 펼쳐갔다. 하여 이들은 불리한 조건에서 7시간동안의 보수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2호보이라의 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였다.

타빈직장과 전기직장에서도 창조와 혁신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김현태, 염성남, 박성훈동무를 비롯한 타빈직장의 전력생산자들이 열변화인, 한번조작의 요구대로 타빈들에 대한 관리운영을 책임적으로 하여 높이 세운 1.4분기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전기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엄간점검, 순회점검을 짜고들어 발전설비마다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더욱 힘차게 울리도록 하였다.

특히 2호와 1호, 4호타빈발전기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월승의 신심에 넘쳐 더 높은 증산목표를 내걸고 혁신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려 날에날마다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3호보이라대보수에 떨쳐나선 보수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매일 맡은 과제를 질적으로 수행하고있다. 특히 대보수직장의 전투원들은 열생산직장 기능공들과 힘을 합쳐 보수기일을 앞당기면서도 많은 증기를 더 생산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자력갱생직장과 보온직장에서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물과 보온솜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 공무직장에서는 선반과 단조설비들을 기술개조하여 맡겨진 부속품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어찌 이뿐이랴. 2호발전기 회전자수리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종전같으면 한주일이상 걸려야 할 과제를 3일동안에 훌륭히 끝낸 전기타빈보수직장의 기술자, 기능공들,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종전보다 뽈생산량을 근 2배로 끌어올리면서도 그 질을 훨씬 높이고있는 자력갱생직장의 로동자들, 미분탄분쇄기의 내부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조하여 미분탄생산성을 1.5배이상으로 높인 열조종실의 전봉준동무, 이악하고 깐진 일솜씨로 제품가공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공무직장의 준마처녀들…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는데 5개년전략수행의 지름길이 있다는 철리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뜻깊은 4월에도 전력증산의 동음을 거세차게 울려가는 이곳 로동계급의 심장은 정녕 불보다 뜨겁다.

당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전력증산성과로 억세게 받들어나가자!

이런 불타는 애국충정을 안고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지금 1.4분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기세로 상반년 전력생산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련속공격전을 더욱 드세차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유훈관철을 생명선으로 틀어쥐면 모든 일이 잘된다

염주군당위원회 사업을 놓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나라의 농업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는데로 당사업을 지향시켜나가야 합니다.》

염주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우량이유기농법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슴속깊이 새긴 진리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면 모든 일이 잘된다!

이것은 그들모두가 진정으로 체치는 신념의 독소리이며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하다.

이런 신념, 이런 좌우명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지절로 억세게 기둥처럼 간직되게 된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식의 우량이유기농법을 완성하고 온 군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린 량명철군당위원장의 사업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기수가 되고 송풍기가 되라

염주군에서 우량이유기농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 시작된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이다.

그 기치를 든것이 다름아닌 량명철군당위원장이였다.

사색을 거듭하던 군당책임일군은 어느 한 단위에서 우량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고있는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리의정박사가 그 단위를 도와주고있었다.

군당책임일군은 곧 박사를 찾아갔다. 우량이유기농법을 온 군에 받아들이겠다는 군당책임일군의 말에 박사는 놀라와했다. 그만큼 이 농법을 받아들이는것이 품이 많이 드는 일이였던것이다. 그래서인지 박사는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군당책임일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의 마지막시기에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포전길을 걸으시였는데 그 뜻을 우리 일군들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며 진정을 주고 몇번이나 걸음을 걷는 군당책임일군에게 박사는 감동되였다.

이렇게 되여 군에 우량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게 된것이다. 그 시작을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룡북협동농장 청년분조에서부터 했다.

군당위원장으로서 할 일이 많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청년분조의 시험포전에 가있었다.

시험포전과 양식장에서 시험을 거듭하고있던 그는 주체98(2009)년 7월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한다고, 우량이유기농법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잊을수 없는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심장에 새겨안은 군당위원장은 그 관철을 위하여 우량이유기농법의 연구사가 되였으며 선전자, 기수가 되였다.

그해 9월 룡북협동농장 청년분조를 본보기로 우량이양식장과 동면장을 꾸리도록 조직하고 매주 2차이상 현지에 나가 건설정형을 료해하였으며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에서 조직하는 모임때마다 군당책임일군은 일군들에게 유기농법과 관련한 당정책과 함께 우량이에 대한 상식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기도 하였다. 한편 보여주기를 통하여 일군들부터 우량이유기농법에 대한 깊은 지식을 소유하게 하였다.

해마다 20여차에 걸쳐 룡북협동농장에서 군안의 협동농장 당일군들과 관리위원장, 기사장들을 대상으로 기술전습회와 보여주기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룡북협동농장에 이어 동성, 외하협동농장들에서도 우량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우량이동면방법이 원가가 많이 들어 실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량이관리공들과 농장의 기술일군들을 찾아가 의논하면서 방도를 찾아나갔다.

그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가정과 사무실에서 직접 동면과정을 연구하면서 고심어린 탐구를 거듭하여 동면방법들을 내놓게 되였다. 이렇게 자신이 솔선 앞장에 서는 한편 일이 잘되지 않아 손때를 놓고 나앉으려고 하는 일부 농장의 일군들과 관리공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진행하여 신심을 안겨주었다.

당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그를 리의정박사가 도와나섰다. 그와 함심하여 여름철에도 우량이동면방법에 대한 연구를 중단없이 진행하는 과정에 농장원들이 가정에서 품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량이사름물을 높일수 있는 동면방법도 찾게 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일제히 우량이양식장과 동면장건설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주에 1차이상 협동농장 기사장들과 우량이관리공들의 경험교환회, 기술전습회를 진행하면서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우량이양식과 관련한 방법을 알고 실천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남암, 내중협동농장이 앞선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으며 그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 군적으로 수천정보의 논에 우량이에 의한 유기농법을 받아들이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그 나날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유기농법완성의 길에서 기수가 되고 송풍기가 될 때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는것이 신념으로 자리잡히게 되였다.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는 기풍, 이것이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에서 찾게 되는 좋은 점이다.

군적으로 우량이유기농법과 관련하여 도입면적을 대폭 늘이였을 때였다. 그 정형을 료해하던 군당책임일군은 일부 협동농장들에서 생산된 우량이를 도로주변의 포전에만 놓아준 사실을 알게 되였다. 우량이의 마리수가 많지 못했던것이다. 우량이통면장을 건설해놓는데만 그치고 양식과 관련한 사업을 잘하지 못한 결과였다.

스쳐지날 문제가 아니였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우량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로 대하지 않았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상적문제로 보았다. 이로부터 그들의 그릇된 사상관점부터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였다.

한편 룡북협동농장 청년분조에 우량이동면장을 건설해놓고 풍력발전기와 콤퓨터를 비롯한 설비를 원만히 보장해주어 동면방법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결실이 좋았다.

성과가 나고 군안의 농장들에 도입되자 이번에는 폭우가 들이닥쳤다.

몇해전 7월 례년에 없는 장마로 포전들에 놓아준 우량이들이 떠내려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였다.

그때 군당책임일군은 군당집행위원들을 비롯한 군금기관 일군들의 긴급협의회를 열고 작업반포전을 분담해주어 우량이를 놓아준 포전들에 바자를 치는 방법으로 폭우와 큰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웠다. 침수위험이 제일 큰 학소협동농장 제4작업반에는 자신이 직접 나가 물량이 많은 논들에 양수기를 설치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유를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침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려는 의지를 안고 군내인민들이 떨쳐나 우량이를 보호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였다. 억수로 쏟아지는 비속에서 울바자를 설치하여 한마리의 우량이도 떠내려가지 못하게 하였다.

언제인가 군당책임일군은 심장병과 고열로 당장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에 놓인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미해지는 속에서도 우량이종자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병원으로 가자는 의사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우량이동면경험이 무쪽한 룡산협동농장을 찾았다. 그 농장뿐아니라 군안의 39개 단위 우량이동면장들을 빠짐없이 돌아보고 온도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적의견을 주었다.

이런 때 집열기가 완성되여 동면장들에서 난문제로 제기되였던 온도보장문제가 해결되였다. 룡북협동농장 보수분조장 조석암동무의 말기에 따라 연구완성된 집열기였다.

이렇게 되여 우량이를 다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길이 열리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풀린것은 아니다. 동면을 끝낸 많은 량의 우량이들을 아외양식장에서 키워 논에 놓아주기 전까지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물사료문제가 제기된것이다.

군당책임일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무일군들을 인민대학습당과 농업연구원에 보내어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 한편 리의정박사와 함께 농장함숙과 양식포전들에서 밤을 밝히며 서로의 지혜를 합쳐나갔다.

이렇게 피타게 노력한 결과 그들은 끝내 좋은 안을 찾아냈다. 짐짐승배설물과 소석회 등을 해당한 비률로 배합하여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젖산균으로 처리하면 가능하다는것이였다.

시험은 성공적이였다. 현장도입을 거쳐 그들은 우량이양식에서 가장 사활적인 문제로 나섰던 먹이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였다. 하여 군적으로 모든 농장들에서 겨울조건에서의 우량이동면방법이 완전성공하여 대량확보할수 있게 되였으며 먹이문제도 자체로 풀고 세끼우량이사름물을 90%이상 보장할수 있는 방법도 자체의 힘으로 내놓았다. 이제는 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에 이르기까지 우량이유기농법에 대하여 환히 알고있다. 모든 협동농장들에 우량이유기농법을 받아들인 결과 김매기공정이 없어지고 많은 로력과 비료를 절약하면서도 지력을 높일수 있게 되였다.

해마다 군에서 정보당 알곡소출을 무단히 높여 2년전에는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전해보다 수백kg이나 더 증수하였다.

4명의 일군들이 석사의 학위를 받았다. 그들가운데는 량명철군당위원장도 있었다.

석사의 학위를 받아안고 돌아오던 날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 누구나 자기일처럼 반가와하며 추억속에 한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면 만사가 잘된다!

결론은 무엇인가.

당일군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전에서 기수, 송풍기가 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미는 열혈투사가 되여 대중을 불러일으킬 때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갈수 있으며 만복을 불러올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개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6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 《만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여》가 개막되였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영상사진문헌이 전람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다.

전람회장에는 탁월한 사상과 걸출한 정치실력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거창한 민족사적대승리를 안아오시고 사회주의위업완성의 창창한 대로를 열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새로 개건된 조선혁명박물관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천만군민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지닌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살며 투쟁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령도의 나날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겨주고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과 혁명의 새로운 전로를 명시한 위대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출위인상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에 어리여있다.

불철주야 현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헌신의 로고를 뜨겁게 절감하게 하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려명거리 준공테프를 끊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이 전람회장에 정중히 모셔져있다.

《평양초등학원 원아들과 함께 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 나라 천만부모의 사랑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뜨거운 열과 정을 부어주시는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여 강성조선의 래일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전람회장에는 또한 당의 령도따라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날에날마다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감명깊게 보여주는 사진들도 전시되여있다.

중앙사진전람회 개막식이 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동지와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판계부문 일군들, 시내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문화상 박춘남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념원에 의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조국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조선으로 빛내여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농업성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에서
송이마다에 비낀 충정의 마음

얼마전 우리가 농업성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찾았을 때였다.

꽃대마다에 활짝 피여나 진분홍보라빛을 뿌리는 아름다운 김일성화, 수백상이 실히 될듯싶은 불멸의 꽃들이 어찌나 꽃잎이 크고 개수도 많은지 온실에 들어선 우리는 절로 탄성을 터뜨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절세의 위인이시며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실뿐아니라 온 세계가 공인하는 인류의 태양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한 성의 한 일군은 태양의 꽃을 더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바쳐온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더없이 맑고 재끗한 충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난해초 성당조직에서는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을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재배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결정을 내렸다.

쌀은 곧 사회주의라고 하시며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포전길을 끊임없이 걸고걸으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성안의 종업원들은 온실개건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는 수백㎡의 토량처리와 보이라개조, 중앙홀완성, 화재설치를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불과 석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끝내는 놀라운 성과를 안아왔다.

온실개건의 나날에 바쳐진 성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점점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불편한 몸으로 화강석광산의 로동계급속에 들어가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온실바닥에 설치할 수많은 고급석재를 구해온 고명희부상에 대한 이야기, 3번이나 위치를 옮겨가며 깊은 땅속에서 솟아오르는 수질이 좋은 생물을 찾아내여 물재배에 리용하고있다는 이야기 등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였다.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지휘하는 바쁜 속에서도 매일 온실에 들려 공사진척정형을 알아보고서야 사무실로 향하군 했다는 성책임일군의 고정일과며 제기된 문제를 즉시에 대책하기 위해 수시로 일리군 하던 일군들의 현장협의회, 지성어린 물자들을 안고 때없이 건설현장에 찾아온 종업원들의 밤걸음은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 걸음걸음에 뜨겁게 실려있은것은 정녕 무엇이였던가.

우리 수령님의 태양같은 미소가 더욱 환히 빛나고 수령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이 대하처럼 흐르는 4월에 자기들의 불변의 신념이 어린 불멸의 꽃바다를 한껏 펼치고싶은것이 농업성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소원이였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 그대로 억센 뿌리가 되고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받들어모실 신념의 명세가 꽃잎이 되여 피여나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더불어 더더욱 아름답고 환희로운 내 조국의 4월임을 온실에 피여난 꽃송이들이 뜨겁게 전하고있었다.

본사기자 김성룡

제23차 태양절료리축전 진행

제23차 태양절료리축전이 2일부터 4일까지 평양면옥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료리협회 각급 위원회들에서 선발된 70여개의 단위들이 참가한 축전에서는 창안료리전시회, 지정료리전시회, 과학기술성과전시회와 음식점대봉사경연, 료리사, 접대원들의 기술경연 및 시범출연, 료리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생들의 료리기술경연이 있었다.

이번 축전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쾌하고 문명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민관을 받들고 각지 봉사자들이 과학성과 예술성을 잘 살려 새롭게 창안완성한 1 100여점의 민족전통음식들과 명료리들, 각종 음료들, 단음식들이 출품되였다.

금양봉사단위들에서 지난 한해동안 나라의 료리기술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 이룩한 성과들을 실물과 직관물, 다매체편집물의 형식으로 전시한 과학기술성과전시회는 전문가들과 참관자들에게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생활력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같은 음식감을 가지고도 자기 식당, 자기 지방을 대표할수 있게 맛있고 영양가가 높으면서도 색과 형태가 조형예술적으로 완벽한 평료리, 온료리, 주식 등을 내놓은 청류관, 양각도국제호텔, 창광봉사관리국, 중구역종합식당, 강원도전시대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제8차 광명성절료리기술경연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일군들과 료리사, 접대원들이 정시에 련마해온 료리기술과 기교를 남김없이 발휘한 시범출연과 이채롭던 대학생들의 료리기술경연도 축전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폐막식이 4일에 진행되였다.

내각부총리 리주오동지,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한영훈동지, 판계부문 일군들, 축전참가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상장과 메달, 증서가 수여되였으며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축전은 음식문화분야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모든 료리사, 접대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한계단 높이며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향상시켜나가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 수여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한 지식인들에게 국가학위학직이 수여되였다.

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된 수여식에는 내각부총리 전광호동지, 지식인들이 참가하였다.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 결정이 전달된 다음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고영해동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연구사 정종수동지에게 원사칭호가,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리현광동지에게 후보원사칭호가 수여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김경철동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연구사 고동완동지, 김형직사범대학 실장 김성복동지, 김철주사범대학 학장 주정심동지, 교원 리동완동지, 김책공업종합대학 학부장 김호동지, 강좌장 홍근의동지, 실장들인 정일철동지, 리무철동지, 연구사 박경룡동지, 평양건축종합대학 학부장 유광석동지, 평양출판인쇄종합대학 교원 최병순동지, 평양룡류리기술대학 학부장 한진동지, 리과대학 교원 김홍금동지, 평양외국어대학 강좌장 채유일동지, 국가과학원 소장 김성윤동지, 연구사들인 홍순권동지, 김영복동지,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약학대학 교원 황행귀동지가 교수의 학직을 수여받았다.

김일성고급당학교 교원 리명철동지,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김수철동지, 교원들인 최현동지, 김성호동지, 리금옥동지, 양영걸동지, 장응식동지, 류은혜동지, 박철웅동지, 박성희동지, 최춘식동지, 실장 지동환동지, 연구사 조연희동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들인 최주성동지, 로경희동지, 지도교원 송영수동지,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실장 강윤숙동지, 김일성종합대학 계응상농업대학 강좌장 김정국동지, 인민경제대학 교원 리천복동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강좌장 장국환동지, 소장 최광철동지, 교원들인 방문철동지, 윤두헌동지, 연구사들인 박세양동지, 박명춘동지, 평양건축종합대학 교원 김만룡동지, 평양철도종합대학 지도교원들인 최창헌동지, 리경일동지,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강좌장 김홍덕동지, 리과대학 부장 김일룡동지, 실장 리성혁동지, 조선체육대학 과장 윤성철동지, 금성정치대학 강좌장 신동철동지, 함북종합대학 총장 최정만동지, 함북종합대학 리제순제1사범대학 강좌장 강성찬동지, 평성석탄공업대학 소장 리영일동지, 평북종합대학 제2사범대학 강좌장 안성동지, 원산농업종합대학 학부장 심정옥동지, 교원 김승학동지, 정준택원산경제대학 교원 양길성동지,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약학대학 과장 유치훈동지, 함흥수리동력대학 지도교원 홍춘화동지, 청진광산금속대학 강좌장 리춘일동지, 국가과학원 부소장 김중경동지, 실장들인 최연봉동지, 박치훈동지, 연구사들인 정혁동지, 강철진동지, 리승철동지, 김철동지, 과장 김명철동지, 농업연구원 소장 류해성동지, 의학연구원 실장 로성룡동지, 교육위원회 국장 김영수동지, 보건성 부국장 최숙현동지, 보건성 제2예방원 약제사 최금룡동지, 만수대창작사 설계원 박선애동지,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에보대 무대장 심명옥동지, 선흥식료공장 기사장 두성희동지,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 연구사 김영란동지, 평양맥주공장 직장장 김룡동지, 최경대내분비연구소 실장 주명심동지, 옥류아동병원 의사 홍정애동지, 평안남도고려병원 부원장 백철호동지, 평안북도정보통신국 기술준비원 제룡일동지, 자강도농촌경리위원회 부위원장 조명란동지, 희천고려약공장 지배인 한영옥동지, 황해북도체신관리국 국장 량일동지, 함경남도농업과학연구소 부소장 림철용동지, 2.8비날론련합기업소 과장 최종길동지, 함흥모방직공장 부기사장 인명화동지, 평양의료기구기술사 실장 정명호동지 등에게 박사의 학위가, 133명에게 부교수의 학직이, 890명에게 석사의 학위가 수여되였다.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아시아의 저명한 인사들》대표단
만경대 방문

디노 빠떠 드잘랄 인도네시아대외정책협회 조정자를 단장으로 하는 《아시아의 저명한 인사들》대표단이 4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만경대고향집에 꽃다발들을 진정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를 방문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수수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부모님들의 혁명적인 교양을 받으시며 성장하시였다. 그이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로부터 나라를 해방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신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바꾸 도착

외무상 리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아제르바이잔에서 진행되는 불력불가담운동 외무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4일 바꾸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아제르바이잔외무성 판계자들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그 진정 뜨겁습니다

특류영예군인인 제가 이렇게 편을 듣기은 저의 건강과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고있는 고마운 사람들을 자랑하고싶어서입니다.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 저의 집을 찾고찾는 사람들속에는 문수3동 52인민반에서 사는 리선녀녀성도 있습니다.

같은 동주민으로서 가까운 곳에 영예군인이 살고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면서 지난해 저의 집문턱을 스스럼없이 넘어선 그는 언제나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저의 건강과 생활의 구석구석을 따뜻이 돌보아주고있습니다.

가정에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영예군인인 저부터 생각하며 한달음에 달려와 안겨주고 여러가지 식료품과 생활필수품, 보약들도 마련하여 때없이 찾아오는 그의 진정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겠습니까.

그 녀성의 남편도 늘 사업으로 바쁘지만 제가 혁명의 꽃을 변함없이 피워가도록 신심을 안겨주었고 멀리 출장길에서도 저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알아보며 깊은 관심을 돌려주고있습니다.

동지적의리심을 안고 부모가 걸는 헌신의 길을 동평양제1중학교에 다니는 그의 아들 김범진학생도 이어가고있습니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늘 모범인 그는 매일이다싶이 저의 집에 찾아와 혁명적인 노래도 불러주고 세바퀴차도 밀어주면서 제가 언제나 전투적랑만과 희열에 넘쳐 살도록 고무해주고있습니다.

저를 위해 바치는 리선녀녀성과 그의 가정의 진정이 뜨거워질수록 따뜻한 정 넘쳐나는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해준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이 더욱 북받쳐올라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습니다.

저는 사회주의대가정의 귀중함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혁명의 꽃을 변함없이 피워가겠습니다.

대동강구역 문수3동
2인민반 리준혁

중국 길림육분중학교대표단 귀국

강국부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길림육분중학교대표단이 4일 비행기로 귀국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주의보건제도를 빛내여갈 불같은 열정안고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간호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와 인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보건일군들가운데는 간호원들도 수없이 많다.

우리가 아래에 소개하는 간호원들도 무한한 헌신과 재끗한 량심으로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삶의 자욱을 아름답게 수놓아가고있는 참된 보건일군들이다.

바치는것이 기쁨이고 행복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간장병과 간호장 리혜옥동무는 19살 단발머리처녀시절부터 오늘까지 40여년간을 제일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간호원으로, 간호장으로 성실히 일해오고있다.

그의 인생길에도 선택의 갈림길은 있었다. 간호원으로 일하는 바쁜 속에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이악하게 노력한 그는 얼마든지 의사가 될수도 있었고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할수도 있었다.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도록 온종일 수술장에서 일하는 간호원보다 의사가 낫지 않은가고 거듭 권고하는 일가친척들의 목소리에 마음속동요를 일으킨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나약해지는 자신을 이겨냈다.

그의 심장속에는 간호원생활의 첫걸음을 떼던 그날 직접 목격하였던 가슴뜨거운 화폭이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뜻밖에 들어온 최중증환자의 소생을 위해 자기들의 피와 살도 서슴없이 바치던 전세대 의료일군들의 모습은 수십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의 망막속에 뚜렷이 새겨져있다.

하기에 언제인가 아들이 그에게 간호원이 뭐가 그리 좋은가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환자들에게 제일 많이 가닿는것이 간호원들의 손길이란다. 정성들여 간호해준 환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다시 혁명초소에 설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단다.》

그것은 자기 직업에 대한 사심없는 사랑이였고 인민을 위한 불같은 헌신이였다.

간호장의 임무를 맡은 후에도 수없이 제기되는 중환자들을 직접 맡아나서며 실천적행동으로 간호원들의 가슴마다에 참된 인생관을 새겨주고있는 그를 모두가 무척 존경하고 따르고있다.

자신을 바치라, 바치는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것이 그의 인생길에 울려퍼지는 아름다운 생의 메아리이다.

지칠줄 모르는 열정으로

김만유병원 신경내과 간호원 송희동무를 두고 많은 환자들이 친혈육같다고들 한다.

그와 함께 일하고있는 간호장은 이 말속에 환자들에 대한 높은 책임성을 지니고 뜨거운 정을 기울여가는 그의 간호원생활과정이 함축되여있다고 이야기했다.

올해 그는 간호원으로 일한지 11년째가 된다. 위재과정에 우리가 만나본 간호원들중에서는 나이도 년한도 많지 않다.

하지만 그는 수십년을 일한 간호원들 못지 않게 환자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고있었다.

언제인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뇌출혈로 사경에 처한 환자를 맡게 되였다. 거듭되는 치료전투끝에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언어장애와 팔다리마비를 피할수 없었다. 환자의 가족들은 정신을 차린것만도 다행이라고 안도의 숨을 내쉬고있을 때 그는 또다시 회복전투에 들어갔다. 순간도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을 기울인 그의 헌신속에 환자는 팔팔내 다시 일어나게 되였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였다. 환자들모두를 자기의 친부모, 친형제로 여기는 마음에서 스스로 우러나온 정성이였다.

특히 그는 양로원의 로인들이나 지방의 환자들과 같이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더욱 극성이였다.

환자의 곁에서 며칠밤씩 꼬박 새워야 할 때는 또 얼마나 많았으랴. 그러나 그의 헌신과 열정은 조금도 지칠줄 몰랐다.

이제는 이런 환자들이 과에 들어오면 의례히 그가 담당하는것으로 되여있다고 한다.

《환자들로부터 친자식같다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기쁘니다. 참된 보건일군들의 대오속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는 긍지감이랄가…》

그의 말은 소박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식을줄 모르는 열정으로 환자치료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있는 그의 마음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아낌없는 사랑을 안겨주고있다.

깨끗한 량심으로 걷는 길

평양시제2인민병원 구급소생과 간호원 류금순동무는 근 20년을 간호원으로 일해오고있다.

의료봉사활동의 정규화, 규범화실현에서 드팀이 없고 책임성이 매우 높다, 그가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고 병원의료일군들은 누구나 말하고있다.

이것을 겉고 간호원년한이 축적되면 누구나 갖추게 되는 응당한 징표라고만 보겠는가.

어릴적부터 새하얀 위생복을 입은 보건일군의 모습을 머리속에 그려보던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소원대로 간호원이 되였다.

실력있는 간호원, 이것은 그의 꿈이였다. 하지만 구급소생과 간호원생활은 꿈과 희망만으로는 걸을수 없는 길이였다.

때없이 들이닥치는 중환자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진행되는 치료전투,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바빴으면 몇년이 되도록 그의 얼굴을 모르는 병원의료일군들이 대다수였다. 때로는 고민한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해외에 출장을 갔던 함께 일하는 한 의료일군으로부터 그 나라의 의료봉사실태에 대하여 알게 되였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얼마나 좋은가를 페부로 절감한 그는 잠시나마 나약해질번 했던 자신을 다잡고 분발해나섰다.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영상을 빛내이는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결심은 그를 몰라보게 성장하게 하였다. 중환자가 제기되면 의례히 선참으로 맡아나섰고 환자들을 위해 자기의 살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그 나날 그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였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한 길에서 값높은 그 영예를 빛내여갈 맹세안고 그는 오늘도 재끗한 량심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조향미

지극한 정성으로

《뜻밖에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저에게 신심을 안겨주고 생활의 활력을 부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의학연구원 방사선의학연구소의 의료일군들입니다. …》

강제시에서 살고있는 리영렬녀성이 보내온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였다.

그가 이곳 연구소를 찾은것은 지난해 6월이였다. 그의 생각은 참으로 착잡했다. 불치의 병이라는 어마어마한 병명이 그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었던것이다.

그러나 이런 심정을 헤아려 뜨거운 정을 부어주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은 그로 하여금 차츰 병에 대한 근심걱정을 잊게 하였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피줄을 이은 혈육처럼 항상 그를 따뜻이 돌봐준 담당의사며 입맛이 떨어질세라 신선한 과일, 맛좋고 영양가높은 음식들을 안겨주고 신심을 잃을세라 자주 찾아와 힘을 주던 의료일군들…

입원생활은 참으로 눈물겨운 순간들이였다고. 따뜻한 그 모습들에서 오래전에 떠나간 부모의 정깊은 눈빛이 어려오고 혈육의 사랑이 느껴져 남몰래 눈물을 흘린적은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는 절절히 토로했다.

이런 뜨거운 사랑과 정은 그에게 소생을 안겨준 불사약이 되였다.

《저의 작은 한가슴으로 안아보기에는 너무도 벅찬 이곳 의료일군들의 정성을 느끼며 저는 심장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제일이라는것을 말입니다.》

환자들을 위해 진심을 바치고 정을 기울이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이 인민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영상으로 새겨진다는것, 바로 이것이 그의 편지가 우리에게 안겨준 깊은 여운이였다.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굳건히 지켜가는 이런 참된 보건일군들이 있는 한 앞으로도 아름다운 인간사랑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해여날것이며 정성의 화원은 더욱더 만발할것이다.

본사기자

애국의 열정, 아름다운 향기 차넘치는 긍지높은 우리 생활

제 힘을 믿고 떨쳐나선 보람

길주철도분국 일군들과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의 돌파구를 열자면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이 총진격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야 합니다.》

길주철도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인민경제의 선행관을 지켜선 긍지드높이 증송의 기적소리, 만리마의 발구름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분국앞에 맡겨진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자체의 힘으로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날마다 위훈을 창조해가고있는 길주철도분국 길주기관차대와 길주객화차대 전투원들, 그들의 들끓는 투쟁과 생활의 일부를 아래에 전한다.

우리의것이 제일이다

전기기관차정상운행에서 절연물문제는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문제의 하나이다. 지금껏 전기기관차의 전동기, 주저항기, 접촉기 등에 쓰이는 절연물은 수입에 의존하고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길주기관차대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각오와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어느날 분국당위원회 책임일군인 김경식동무가 길주기관차대 기술발전과 부원 송혁철동무를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수입산 절연테프가 들려있었다.

《혁철동무, 이 자그마한 수입산절연테프때문에 기관차수리와 운행에서 지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난 잠이 다 오지 않는구만.》

안타까운 어조로 이야기하는 당일군의 진정에 송혁철동무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바로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발전과가 있고 자기와 같은 기술행정일군들이 있는것이 아닌가.

《무조건 해내겠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 길주기관차대에는 송혁철동무를 비롯한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로 전기기관차에 쓰이는 분말운모절연테프개발조카 무어졌다.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간고했다. 모든것이 생소했다.

그러나 개발조 성원들은 주저를 몰랐다. 절연테프생산에 필요한 원료구입과 지구장비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졌다. 그 나날 설계도면완성을 위해 수백리먼길을 떠난적은 몇번이고 운모지생산을 위한 초지기제작을 위해 수십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한밤을 꼬박 새운적은 그 얼마였던가.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연구사업이 너무도 어렵고 힘에 부치여 주저앉다싶이 했던적도 있었다. 그러나 개발조 성원들이 신심을 잃을세라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혜와 열정의 나래를 펼아주는 기관차대일군들의 믿음과 방조는 제품개발사업의 밑거름이였고 원동력이였다.

지난 1월 중순 길주기관차대 절연테프개발전투현장에 긴장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운모지시험생산이 진행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시험결과는 또 실패였다. 이때 분국당위원회 책임일군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지난 세기 50년대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첫 트락토르도 처음에는 앞으로 간것이 아니라 뒤로 갔소. 그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락심하지 말라, 첫 트락토르가 뒤로 간다는것은 앞으로도 갈수 있다는것이다라고 우리 로동계급을 고무해주시였소. 운모지가 생산되여나온것만도 큰 성과요.》

기적은 자기 손에서 창조된다

오늘 길주철도분국을 찾는 사람들은 길주객화차대의 변모된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군 한다. 그도그럴것이 자연재해로 페허나 다름없이 되였던 객화차대 수리차고와 자력갱생기지가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꾸려지고 객화차운영과 수리에 필요한것을 마음먹은대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그윽히 갖추어졌기때문이다.

한해전 기관차대의 수리차고를 오래동안 돌아보는 일군이 있었다. 분국당위원회 책임일군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심중은 무거워만졌다. 자연재해로 겨우 골조만 서있다싶이한 수리차고, 때없이 입고되는 객화차들을 한지나 다름없는 곳에서 수리정비하고있는 안타까운 현실…

어려울 때일수록 대중의 무한대한 힘을 믿고 시련과 난관을 뚫고나가자!

곧 분국당위원회적인 토의사업이 진행되였다. 안건은 자력자강의 정신력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길주객화차대 수리차고를 분국은 물론 철도성적으로 손꼽히는 수리차고로 일떠세우기 위한 문제였다.

얼마후 길주객화차대에서는 면적만 해도 수천㎡나 되는 수리차고개건전투가 시작되였다.

공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차고지붕에 앉힐 대형트라스제작과 설치였다.

어느 누구에게도 대형트라스제작과 설치를 해본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기관차대일군들과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는 나라의 동맥을 지켜섰다는 자각이 활화산처럼 불타올랐다.

이윽한 난관앞에서 물러선다면 어떻게 나라의 동맥을 지켜선 철도로동계급이라고 떳떳이 말할수 있겠는가. 이런 각오와 의지를 안고 기관차대자체의 기술력량으로 트라스설계를 최량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어느날 트라스조립에 필요한 지구장비제작전투장으로 여러 사람이 들어섰다. 객화차대일군들이였다.

《자, 전체 기관차대의 성의가 깃든 후방물자요. 어떻게 알았는지 트라스용접변형을 막기 위한 지구장비제작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벌써 기관차대안에 짜하게 퍼졌더구만.》

전투원들의 눈길은 저도모르게 젖어들었다. 그 후방물자가 트라스조립전투에 참가한 자기들을 위해 기관차대일군들과 가족들이 마련한것인줄 그들이 어찌 모르랴.

지난해 11월 길주객화차대의 드넓은 구내에 4 000여㎡의 수리차고가 번듯하게 일떠섰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제힘을 굳게 믿고 만난을 뚫고나가는 길주객화차대 일군들과 철도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소중한 결정체였다. 오늘 길주객화차대는 자체의 공무기지에 의거하여 객화차부속품은 물론 문형기중기와 콩크리트혼합기를 비롯한 대형설비들도 마음먹은대로 생산해내는 힘있는 단위, 전투력이 강한 집단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길주철도분국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증송의 기적소리, 만리마의 발구름소리 높이 창조와 혁신의 서사시를 아름답게 수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리남호

우편통신원들을 위해 바치는 진정

남포시체신관리국 일군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누구나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따라배워 인민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지난 1월 남포시체신관리국 남포우편국에서는 이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보기에도 산뜻하고 포근한감을 자아내는 새 솜옷들을 입은 우편통신원들이 자기들의 모습을 거울에 비쳐보며 즐거운 미소를 짓고있었다.

《좀이 너무 크지 않소? 팔소매가 좀 긴것 같구만.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은가 한번 걸어보라구. …》

사려깊은 눈길로 우편통신원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국장 김명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연방 걱정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새 솜옷이 얼마나 두툼한지 대소한의 추위도 문제없겠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가벼우니 훨훨 날아다닐것 같습니다.》

우편통신원들이 기쁨에 넘쳐 이구동성으로 터놓는 말을 듣고서도 일군들은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했다. 늘 그런 모습이였다.

우편통신원들에게 더 좋은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사색을 거듭하고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며 아글타글 애쓰는 남포시체신관리국의 일군들이다.

몇해전 어느날 부부우편통신원의 집을 찾았던 김명남동무는 큰 충격을 받게 되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편물배포사업을 진행하느라 생활에서 애로되는것이 많겠는데 기탄없이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에게 부부우편통신원은 한목소리로 말하였다.

《당의 목소리가 인민들에게 더 빨리 가닿게 하자면 우리의 걸음이 따라서야겠는데 그것이 안타까울뿐입니다.》

그들이라고 왜 남부럽지 않게 집도 꾸리고 자식들을 내세우고 싶지 않으랴. 하지만 인민들의 심장이 당의 뜻으로 고동치도록 당사상전선의 중요초소를 지켜선 전초병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자각을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우편물을 배포하며 남모르는 헌신의 길을 묵묵히 걸고있는 그들이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일군들이 분발해나섰다.

우편통신원들을 자주 만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풀어주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김명남동무와 일군들은 어기서기로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며 많은 후방물자들을 해결하여 우편통신원들에게 공급하였고 걸음을 많이 걷는 그들을 위해 신발도 마련해주었다. 일군들의 관심과 고무에 힘을 얻은 우편통신원들속에서 사업에 대한 책임성과 열의가 더욱 높아졌고 우편물배포시간도 훨씬 단축되였다.

일군들

언제인가 김명남동무가 무엇인가 한가득 들어있는 무거운 배낭을 지고 밤늦게 관리국으로 들어섰다. 그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의아함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에게 김명남동무는 웃으며 말했다.

《요전번 우편통신원들과 함께 밤늦도록 우편물배포사업을 하면서 보니 그들에게 이게 절실히 필요하겠더란 말이요. 그래서 급히 떠났는데 차를 놓치는통에 수십리를 내처 걸어왔소.》

배낭에는 성능이 좋은 전지들이 들어있었다.

한 우편통신원이 중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였을 때였다. 김명남동무와 일군들은 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물자들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병원으로 찾아갔다. 친척들이 멀리에 있는 그의 수술림회를 서는 문제가 제기되였다.

《우린 그의 혁명동지들입니다. 그러니 수술림회는 우리가 서겠습니다.》

그 말에 담당의사는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이런것이 바로 친혈육의 사랑을 초월하는 불보다 뜨거운 동지적사랑이 아니랴.

남포시체신관리국의 우편통신원들속에서는 서로 돕고 위해주는 기풍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일군들의 이신작칙이 그들의 가슴속에 동지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새겨준것이다. 이처럼 화목한 집단의 한성원으로 살며, 주민들로부터 우리 우편통신원이라는 정다운 부름으로 불리우며 그들은 우편물배포길을 힘있게 이어간다. 그럴수록 우편통신원들을 위해 마음속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매고있는 일군들이다.

본사기자 조경철

일요일마다 펼쳐지는 감동적인 화폭

증산군 일군들

병원에서의 일요일은 언제나 흥성이기마련이다. 이날이면 가족들과 친척, 친우들이 생신한 꽃이며 당과류 등을 들고 즐지어 찾아든다. 호실마다 면회자들이 다정히 모여앉아 환자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서로의 안부도 물으며 한집안분위기를 이루는것이 다름아닌 우리 병원들의 일요일풍경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증산군의 한 일군이 자기네 군인민병원에서 일요일마다 펼쳐지는 이채로운 풍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별로 흥미가 동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것은 참으로 감동깊은 사실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당이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이 틀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지난 1월 어느 일요일 증산군인민병원에 입원한 함종리의 한 녀성농장원은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그는 두 자식을 다 조국보위초소에 세운 인민군후방가족이였다. 병원침상에 있으니 군대에 나간 자식들이 별로 더 그리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더구나 그가 살고있는 함종리는 읍지구에서 수십리나 떨어져있어 가족, 친지들이 면회를 오려면 아침일찍 떠났다고 해도 중낮이 되여야 도착할수 있었던것이다.

이때였다. 여러 사람들이 그의 호실에 들어섰다. 그들은 호실의 누구에게 면회를 온것인지…

호기심어린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던 녀성농장원은 지도모르게 속으로 웃고말았다. 병원에서 한가하게 있으니 별 신경을 다 쓴다는 생각에서였다.

이때였다.

제일 앞서 들어온 일군이 《함종리에서 온 동무지요?》라고 하며 그의 침대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것이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하자 다른 일군들도 모두 와서 그를 빙 둘러쌌다.

몸은 좀 어떤가. 어떤 치료를 받는가. 집에는 누구누구가 있는가. …

연방 쏟아지는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면서도 녀성농장원은 그들이 누구인지, 왜서 자기한테 그처럼 관심을 돌리는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런데 이때 호실문이 열리며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열침대의 얘기어머니한테로 다가가는것이였다.

그 얘기어머니 역시 자기를 찾아온 면회자들과 초면인 모양인지 녀성농장원과 다름없는 얼떨름한 자세로 그들을 맞았다.

그날 증산군인민병원의 수십개 호실들에서는 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였다.

환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뜻밖의 면회자들, 그들은 다름아닌 군급기관 일군들이였다.

그런 일은 한주일이 지난 다음일요일에도, 또 다음주 일요일에도 계속 벌어졌다. …

지난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어떻게 하면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더 잘 받들어나가겠는가를 생각하며 군인민병원을 찾아 실태를 료해하던 군당책임일군은 찬바람부는 마당가에 서있는 한 환자를 보게 되였다.

왜 여기에 있는가고 물으니 집에서 면회를 오겠다고 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나니 아마 늦어지는 모양이라고, 그래서 밖에 나와 기다리는중이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날 군당위원회에서는 긴급협의회가 열렸다.

우리 군당위원회의 사업에 빈구석이 있었다고,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난 책임일군은 이제부터 일요일마다 군급기관 일군들이 군인민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면회를 가는것이 어떻겠는가고 하는것이였다.

소박해도 성의껏 준비한 면회물자를 가지고 군인민병원의 입원환자들을 빠짐없이 찾아가보자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치료도 잘되겠는가고 하는 군당책임일군의 진정은 협의회에 참가한 일군들의 가슴을 울리였다.

그리하여 일요일마다 군급기관 일군들의 첫 일과는 군인민병원에 면회를 가는것으로 되였다.

부모형제도 친척, 친우도 아닌 자기들에게 이렇듯 진정을 쏟아부으니 몸둘바를 모르겠다고 하는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일군들은 마음속으로 불같이 다짐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인민들, 그들이야말로 우리 일군들의 제일 가까운 살붙이가 아니랴.)

증산군일군들의 모습에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고귀한 당풍, 멸사복무정신을 뜨겁게 절감하며 증산군인민들도 마음다진다.

이렇듯 고마운 당을 위하여서는 죽을 고비에라도 얼백번 한몸을 내대리라고.

본사기자 허명숙

전세대들의 고귀한 넋을 이어

함경남도인민병원 리승걸동무와 그의 가정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는것을 가풍으로 어기고있는 이 땅의 수많은 가정들가운데는 함경남도인민병원 기사인 박사 부교수 리승걸동무의 가정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두해전 2월 어느날 새벽어스름이 깃든 인적드문 거리에서 두사람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리승걸동무와 그의 안해 윤성희동무였다.

《다문 하루만이라도 좀 쉬고 떠나는게 어때요?》

전국의 유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들에 보내줄 소독수제조기를 제작하기 위한 전투를 벌리느라 며칠밤을 꼬박 지새운 남편을 걱정하는 안해의 말이였다.

《당신이야 내 마음을 잘 알지 않소. 저 세포등판이 이제나 저제나 나를 기다리고있소.》

세포등판의 물판을 소독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스스로 말아나선 그였다. 뼈스에 오르는 그에게 무거운 배낭을 지워주며 윤성희동무는 웃으며 말했다.

《이 배낭속에 당신의 도중식사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곳 돌격대원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가 해서 준비한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가정의 소박한 지원물자예요.》

손을 저어주며 바래우던 안해의 모습도 이제는 자그마한 점으로만 보인다.

리승걸동무는 저도모르게 《소독수!》 하고 조용히 되뇌여보았다. 불현듯 지나간 일들이 그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가 소독수를 연구하기 시작한것은 나라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던 수십년전이다.

소독약이 없어 보건부문에서 애로를 느끼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이 문제를 스스로 맡아나섰다.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과학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그때 그에게 있었다면 오직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절실히 필요한 문제를 반드시 자기가 풀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였다.

소독수연구의 나날 그가 필요한 자료들을 얻기 위해 평양의학대학(당시)과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여러 과학연구기관들을 찾은 길은 그 얼마였던가.

나약해진적도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준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혁명가유자녀라는 값높은 부름이였다.

이 부름은 불편한 몸으로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던 전쟁로병이며 박사였던 아버지의 가슴속에도 소중히 간직되여있었다. 한생을 고스란히 애국의 길에 바친 아버지의 모습은 그의 가슴속에 혁명가유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었다.

사실 소독수를 해결하는 문제는 단순한 과학기술적문제이기전에 인간의 생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어떤 사람들은 예민한 연구과제를 맡아안고 공연히 고생하지 말라고 가벼운 《충고》를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피와 목숨까지 서슴없이 바쳤는데 지혜와 정열이야 왜 못 바치겠는가.)

이런 비상한 각오를 안고 그는 끝끝내 우리 식의 소독수제조기를 완성하여 내놓았고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였다. …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도착한 그는 돌격대원들과 침식도 같이하면서 연구사업을 다그쳐나갔다. 제일 난감한것은 세포등판의 물판소독에 필요한 소독수제조기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자재와 자금을 비롯하여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며칠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안해와 마주앉았다.

《여보, 지금 온 나라가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성의껏 지원하고있는데 우리 가정에서도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소.》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그래야 자식들앞에도 떳떳하지 않겠나요.》

얼마후 리승걸동무는 온 가족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품을 들여 제작한 수십대의 소독수제조기를 싣고 다시 세포등판으로 떠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의 건강증진과 물판, 축사소독에 필요한 수십대의 성능좋은 소독수제조기를 창안제작하여 지원한 리승걸동무에게 온 정어린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그날 리승걸동무는 가족과 함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유해가 안치되여있는 함흥렬사릉을 찾았다. 그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당을 따라 한길로만 가는것은 우리 가정의 가풍이다. 바로 그 길에 우리 가정의 미래도 행복도 있다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자.》

본사기자 신철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자본주의사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극소수의 착취자와 압박자들에게는 천당으로 되지만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지옥으로 됩니다.》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한가지 사실이 있다.

어느해 봄 한 자본주의나라 지방법원에서는 일흔두살 난 로인을 물어죽인 개에 대한 재판이 벌어졌다.

재판에서 처음에는 개에게 사형이 언도되였다.

그런데 얼홀이 지나 개한테 내려졌던 사형선고가 류배형으로 감형되였다. 개의 주인이 소송을 걸었던것이다.

그에 대하여 로인의 일가친척과 증인들이 항의를 표시하자 재판소에서는 새로운 사건조사내용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것인즉 로인이 개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기때문에 개가 《정당방위》로서 그를 물어죽였다는것이였다.

사실은 배가 고파 동냥길에 나섰던 로인이 돈많은 부자집에 들어서다가 주인이 풀어놓은 개한테 물려 죽은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놈은 사법당국에 많은 뢰물을 먹여 자기의 개를 살리기 위한 소송놀음을 벌리였다. 이렇게 되여 사실을 뒤집어엎는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것이였다.

개가 사람과 동등한 자격으로 법정에 올라 사형이요 류배형이요 하고 판결을 받는것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사람을 물어죽인 개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치부한것이야말로 개같은 세상인 자본주의사회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정당방위》란 바로 이런것이다.

또 다른 사실들도 있다.

여러해전 미국의 어느 한 주에서는 무방비상태의 19살 난 흑인청년이 백인경찰의 총에 맞아 무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놓고 미사법당국을 비롯한 집권계층은 《공무집행》이요, 《정당방위》요 하면서 경찰의 범죄행위를 싸고들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도대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간의 세상이 맞는가, 경찰제복을 입은자들이 짐승사냥하듯 사람들을 마구 쏘아죽이고있으니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고 항의하였다.

하다면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여 경찰의 살인만행이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식인종주의와 미집권계층의 절대적인 비호두둔이 제복입은 경찰들을 포악한 살인범으로 만들고있다.

극소수 독점재벌들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미국에서 경찰은 특권계층의 반인민적폭정과 인종차별정책실현의 《합법적》 도구로 전락되여 근로대중을 대상으로 온갖 인권유린행위를 수없이 감행하고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커녕 있어본적이 없다.

미국의 한 아동공원에서 10대의 소년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소년이 제때에 손을 들지 않았다고 하여 총탄을 두발이나 쏴서 즉사시킨 경찰의 범죄행위는 《공무집행》으로 정당화되였다.

알려진데 의하면 미국에서 10여년동안에 살인을 감행한것으로 하여 재판에 기소되였던 경찰들가운데서 유죄로 인정된것은 단 한명뿐이라고 한다. 그것도 살인자에게 내려진 판결이라는것이 500시간안으로 《유익한 일》을 하라는것이였다. 사람을 죽인 대신 제정된 시간내에 《유익한 일》을 하면 그 죄를 씻을수 있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이것이 바로 미국의 현실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들에 의해 살해되였지만 그 자료가 오랜 기간 전국적인 살인범죄통계수자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도 경찰의 살인만행이 범죄로 취급되지 않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련방수사국까지도 정부가 경찰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있다고 인정하는 여러건의 문건들을 발표하는 정도이니 경찰들은 집권계층의 보호속에서 사람잡이를 범상한 일로, 도락으로 삼고있으며 설사 문제거리가 생긴다고 해도 《정당방위》로 몰아붙이면서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다.

로씨아의 한 신문은 미국에서 경찰들이 매해 근 1 0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고있는데 대하여 밝혔다.

이것은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이 경찰의 사격목표가 되여 생명을 유린당하는 미국사회의 인권실상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더욱 경악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경찰에 의해 살해되는 사람이 각종 테로행위에 의해 목숨을 잃는 사람보다 언제이상 더 많다는것이다.

경찰이 오히려 테로분자들도 무색할 정도로 살인행위를 수없이 저지르고있으니 미국이야말로 경찰과 범죄자가 따로 없는 범죄왕국, 인권불모지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자본주의세계의 이와 같은 사실들은 우리 인민에게 자본주의사회는 인민대중의 무덤이며 사회주의사회야말로 참다운 인민의 락원이라는것, 이 소중한 제도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철리를 다시금 깊이 새겨준다.

본사기자

복수의 피가 끓도록

우시군 가하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반제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의 심장마다에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불같은 증오가 끓어번지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주, 월, 분기별로 세운 계급교양사업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이 투철한 계급적자각을 가지고 사업과 생활을 전투적으로 헤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리당위원회에서는 계급교양실황판을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참판을 통하여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이 저지른 귀축같은 만행들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으며 기어이 복수하고야말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또한 리당위원회일군들이 작업반과 분조들에 내려갈 때마다 농장원들에게 미제가 력사적으로 감행하여온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에 대하여 자료적으로 깊이있게 해설해주도록 하고있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되는 계급교양사업은 농장원들로 하여금 결사의 각오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켜나가게 하고있다.

로농통신원 최창룡

백년숙적 미제살인마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복수의 결의로 가슴 불태운다.
—신천박물관에서— 김광림 찍음

우리의 확고한 자주통일의지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힘찬 대진군에 산악같이 일떠서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전진과 조선반도의 평화,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도전은 극도에 달하고있지만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최후승리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자기가 선택한 옳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기상을 꺾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그 어떤 정세변화속에서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 자주통일의 길을 다그쳐나가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립장이다.

최근 몇해사이에 우리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이 이룩되고 올해에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것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며 하늘이 준 우연도 아니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을 위한 전행정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으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견실과 판단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해왔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자주와 사회주의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는 우리 공화국을 굴복시켜보려고 전대미문의 위협공갈과 야만적인 제재압박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천지풍파에도 끄떡하지 않는다. 횡포무도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감행하고있는 류례없이 악랄한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도 우리의 자력자강의 위력앞에서는 한갖 물거품에 지나지 않으며 원쑤들이 발악할수록 우리의 일심단결은 최상의 높이에서 다져지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최악의 역경속에서 최상의 기적적승리들을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이룩하며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투철한 자주적립장을 견지해온데 있다.

지금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있는것도 우리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자주통일립장이 안아온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의 통일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번영을 바라는 북과 남, 해외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가장 정당한 로선이다.

조국통일위업은 그 누가 대신해줄수 없으며 그 주인인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은 반통일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적극 투쟁해왔다.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애국애족적인 노력은 온 겨레의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것은 조국통일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되였다.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오늘의 정세국면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전지해온 자주통일로선과 정책이 안아온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비범한 지략과 세련된 령도력으로 자주통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고계신다. 복잡다단한 정세흐름을 환히 꿰뚫어보시고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절세위인의 손길아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의 밝은 전망이 펼쳐지고있다.

그에 대해 남조선과 세계의 언론들은 우리의 주동적인 결단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긴장완화의 기운이 고조되고있다고 앞을 다투어 대서특필하고있다. 남조선과 세계의 주요언론들은 《조선반도정세를 급변시킨 중심에는 김정은위원장의 결심이 있다.》, 《가장 강한 운전대를 틀어쥐고 정세주도의 자신감 표시》 등으로 보도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진보련대, 민주로총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은 우리의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참가 등으로 대결의 장벽에 파렬구가 생기고 조선반도에 평화의 봄이 도래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파격적인 소식이다.》, 《감동으로 잠도 이루기 어렵다.》, 《긍지와 자랑으로 가슴터질 지경이다.》라고 경탄하면서 서울과 부산, 대전을 비롯한 각지에서 다양한 통일행사들을 열고있다. 남조선의 인터네트홈페지들에는 《평화와 통일로 가는 가능성을 보았다.》,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다.》, 《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등의 글들이 수없이 오르고있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국제사회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국제사회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비범한 전략적구상과 든든한 배심, 통이 큰 결단과 파격적조치로 조선반도정세와 세계정치흐름을 극적으로 전환시켜나가고계신다고 격찬하고있다. 그러면서 현정세국면은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전략적지위와 일심단결의 위력, 우리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립장의 승리로 된다고 평하고있다. 국제기구들은 우리 공화국의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를 적극 환영하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립장을 발표하고있다.

한편 남조선과 세계여론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을 마치 그 무슨 《제재압박의 결과》인듯이 현실을 오도하고있는데 대해 비난, 조소하고있다. 전 미국무성 차관보는 《김정은위원장의 외교공세, 미국의 정책을 얹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행정부는 최대압박을 가하고있지만 조선은 별로 압박을 느끼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현정세국면을 《제재압박의 결과》로 보는것은 큰 착오라고 까밝혔다.

력사와 현실은 우리 공화국이 자주의 원칙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불변의 궤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위업을 떠밀어온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전진해나갈것이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기 위해 적극 투쟁할것이다.

박 철 준

정치난쟁이의 부질없는 망동

일본이 대조선단독제재의 《실효성》을 운운하며 자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선박들은 《북조선기항리력여부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만일 우리 나라에 들린적이 있는 선박들이 그것을 숨기고 일본의 항구에 입항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지어 징역형과 같은 범죄처벌을 가하기로 하였다.

역시 정치적으로 아둔하고 시대적감각이 무딘 섬나라족속들만이 할수 있는 부질없는 망동이다.

우리는 언제 한번 제재밖에서 살아본적이 없다. 장장 수십년동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에 매달려왔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사소한 주저와 동요도 몰랐다.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기적을 창조하며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여왔다.

위대한 자강력을 원동력으로 하여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제재나 봉쇄라는것이 통하지 않는다.

우리를 늘 색안경을 끼고 보고 대하며 외곡된 여론만 내돌리는데 습관된 서방의 조선문제전문가들도 이것을 인정하고있다.

일본따위의 제재놀음에 놀랄 우리가 아니다. 일본반동들이 갖은 발악을 다하여도 우리의 앞길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한다.

문제는 일본이 무엇때문에 아무것도 걸어볼것이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토록 집요하게 대조선제재소동에 매여달리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이번에 일본당국자들은 저들이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된것은 렬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기때문이라고 하였다.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이 지구상에는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가 없다. 일본주변지역정세도 불안정하지 않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정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있다.

조선반도정세만 보아도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가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와 노력에 의하여 화해와 완화의 기운이 감돌고있다.

그런데도 일본반동들은 마치도 우리가 《위협》을 가하는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단독제재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다.

상전인 미국의 장단에 맞추어 춤추고있다. 얼마전 미국은 우리의 《제재회피시도》를 막고 공해상에서 거래를 돕는 불법수단들을 차단한다는 미명하에 우리와 제3국의 해운 및 무역회사, 선박을 대상으로 단독제재를 실시한다는것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적극 편승하여 우리를 걸고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찍어말한다면 부정부패행위로 심각한 통치위기에 몰린 현 사태를 억제시키는것과 동시에 군사대국화책동을 정당화하며 나아가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고 재침의 길에 휘어들자는것이다.

지금 아베패당의 처지는 말이 아니다. 모리또모학원문제를 둘러싼 부정추문사건이 계속 확대되는것으로 하여 아베와 자민당패거리들은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었다.

아베패당에게는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구실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골을 굴려 고안해낸것이 우리의 《위협》을 걸고 대조선단독제재의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것이다. 여기에는 일본국민들속에서 심리적변화를 일으켜 그들스스로가 헌법개악을 지지하게 만들려는 타산이 깔려있다.

미국에 추종하면서 단독제재로 우리를 어째보겠다고 하는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을 따오겠다고 하는것만큼이나 어리석은것이다.

우리는 비록 사소한것이라도 나라의 자주권을 해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일본반동들은 우리의 이 경고를 무심히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리 학 남

습근평주석 록화사업을 잘할데 대해 강조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2일 식수활동에 참가한 간부, 군중들과의 담화석상에서 록화사업을 잘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식수 및 산림조성사업이 중화민족의 훌륭한 전통으로 되여왔다고 하면서 의무식수활동을 전지하고 록화사업을 착실하게 해나감으로써 조국을 보다 아름답게 꾸려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날 습근평주석은 베이징시 통주구에 나가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 수도시민들과 함께 의무식수활동에 참가하였다.

아브들 파타흐 알 씨씨 에짚트대통령으로 재선

에짚트에서 아브들 파타흐 알 씨씨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그는 3월말에 진행된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다수의 지지표를 받았다.

중국외교부 중미무역전쟁에 대해 언급

중국외교부 대변인 경상이 3일 정기기자회견에서 중미무역전쟁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2일부터 현산지가 미국인 7종의 128가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감소의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한것은 미국측의 강철 및 알루미니움수입제품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처한것이며 중국의 리익에 주는 피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기 나라는 시종일관 무역전쟁을 도발하지 않을것이며 무역전쟁을 할 생각이 없지만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여왔다고 하면서 만일 일부 사람들이 한사코 싸움을 걸어오고 심지어 코앞에서 싸움을 벌린다면 마지막까지 상대해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 중국에 제한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에 대응할것이다, 미국측에 목록이 있으면 중국에도 목록이 있다고 그는 언명하였다.

이란외무성 부상 아빠스 아라그치가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온이 유지되자면 외국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외국군대철수를 요구

그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문제에 관하여서는 그 어떤 군사적방법도 비효과적이라고 하면서 군사적접근책은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앞으로도 실패를 면치 못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 나라에서 아직도 분쟁이 그치지 않고있는것은 외국군대가 주둔하고있기때문이라고 까밝히고 그는 외국군대의 철수가 정온의 서막으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과 서방의 로씨야 외교관추방소동에 우려

꾸바외무성 보도국장이 3월 28일 미국과 서방의 대규모적인 로씨야외교관추방소동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는 영국에서 발생한 간첩암살미수사건과 관련하여 미국과 기타 나토성원국들이 취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제관계에서 보편적인것으로 되여야 할 대화와 리해, 협조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로씨야외교관추방조치가 사건의 공정한 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취해졌다고 비난하면서 꾸바는 대결보다 협조가 보편화되여야 한다고 간주하며 국제적안정을 해치는 일방적인 조치를 반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경찰에 의한 살인사건 발생

인권유린의 란무장인 미국에서 경찰들에 의한 살인범죄가 그치지 않고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의 새크러멘토우시에서 경찰들이 무방비상태의 흑인을 총으로 쏘아죽이였다.

경찰들은 피해자가 무기를 소지하고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사격하였다고 변명하였지만 실지 그가 손에 들고있은것은 무기가 아니라 손전화기였다고 한다.

이것은 사람잡이들 도락으로 어기는 미국경찰들의 야수성과 포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특등범죄자의 가련한 신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3월 22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리명박에 대한 구속령장을 정식 발부한데 따라 억도는 《716》이라는 수인번호를 달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였다. 이로써 리명박역도는 전직 《대통령》들가운데서 전두환, 로태우, 박근혜에 이어 4번째로 감옥에 갇혀 검찰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였다.

리명박역도가 구속된것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야정당들과 각계층 시민단체들은 《력사의 진리는 막을수 없다.》, 《적폐〈정권〉 9년이 뒤늦게 막을 내렸다.》, 《남은것은 법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직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악용한 억도의 죄행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나서고있다.

리명박역도에 대한 남조선각계의 단죄규탄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억도가 구속된것은 권력을 악용하여 전대미문의 반인민적악정과 특대형부정부패행위,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책동에 매달려온 특등범죄자에 대한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다.

리명박역도는 집권후 《외세우선》론을 제창하면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상전의 비위를 맞추면서 민족의 리익을 해치고 인민들의 생존권을 짓이겨버리는것도 서슴지 않았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놀음과 미국과의 굴욕적인 《자유무역협정》체결, 미국산 미싸일기수입강행 등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존엄과 권리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남조선의 식민지적예속성은 더한층 심화되였다.

6.15를 계기로 통제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괴한 억도의 죄악은 또 어떤가.

민족공조를 부정하고 외세에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리명박억도의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은 6.15공동선언발표이후 활력있게 진행되여오던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사업을 파탄시키였다. 억도는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거듭되는 노력을 《진정성》따위의 나발로 모독하면서 6.15통일시대의 귀중한 성과들을 모조리 짓밟았다. 《원칙고수》의 미명하에 대결정책을 정당화하면서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소소한 협력마저 차단시켰다. 리명박역도의 집권기간 북남사이에 면면한 대화가 한번도 열리지 못하고 겨우 열렸던것마저 파탄되고만것은 미국과 결탁하여 반공화국대결에 미쳐날뛴 억도의 대화파괴책동때문이였다.

리명박역도는 집권기간 동족을 해치기 위한 작전계획들을 선제공격적인것으로 틀어고치고 그 무슨 《군사적우세》를 피하면서 최신공격무기들과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또한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사킨을 비롯한 사상 류례없는 특대형모략사건들과 군사적도발사건들을 련이어 일으키면서 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바싹 끌고갔다. 한편 저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단죄규탄하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실현할것을 주장하는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을 《친북파과세력》, 《종북세력》, 《간첩》으로 몰아 가혹하게 탄압처형하였다.

리명박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반인민적악정에 매달리면서 희세의 도적왕초로서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것은 남조선 각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알려진바와 같이 억도는 집권초기에 《경제를 살리겠다.》느니,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느니 하고 너스레를 떨면서 그 무슨 《747》공약이라는것을 요란스럽게 선전하였었다. 그러나 《747》공약이라는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고 남조선은 경제파국과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부정부패와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사람 못살 생지옥으로 며욱 전락되였다.

리명박역도가 집권후 한 일이 있다면 인민들이 하라는것은 하지 않고 《4대강정비사업》과 《공기업민영화》와 같은 반역정책들을 한사코 추진하면서 재벌들의 배를 불리여주고 부정부패행위로 묵돈을 걸어들인것뿐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억도가 《대통령》직을 악용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돈벌이에 피눈이 되여 날뛴 특대형범죄사실들이 련이어 폭로되고있다. 리명박이 정보원으로부터 4억원이상의 특수활동비를 가로챈 사실, 《대통령당선축하금》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먹은 사실, 12년간에 걸쳐 다스회사를 운영하면서 3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액수의 비밀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사실 등의 죄상들은 이미 검찰당국의 조사와 자기 측근들, 여러 기업가들의 진술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리명박이 권력을 휘두르며 감행한 특대형범죄사건들에는 억도의 녀편네는 물론 아들과 사위, 형을 비롯한 일가족속친원이 련루되여있다.

국악한 친미사대매국노, 파쑈장계, 대결미치광이, 특등도적왕초로서의 리명박역도의 추악한 정체는 절대로 감출수 없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전두환, 로태우, 박근혜에 이어 리명박역도에 이르기까지 전직《대통령》으로서 감옥에 갇힌 자들은 신통히도 보수우두머리들이다. 이것은 남조선보수패당이야말로 력대적으로 민심을 거역하고 가장 추악한것만 저지르는 국악무도한 범죄집단이라는것을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리명박역도의 구속과 관련하여 《잔인한 정치보복》이라느니, 《다음은 너희들 차례》라느니 하고 고아대며 칼을 뽑고 날뛰고있는것이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리명박역도가 구속된데 대해 죄의식을 느낄 대신 오히려 악을 써대면서 《복수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는것이야말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우롱이고 전면도전이다. 이런 가증스러운 억적무리를 모조리 박멸하지 않는다면 그 잔당들이 또다시 머리를 쳐들고 남조선정치판을 구린내나는 부정부패범죄의 란무장으로 더욱 전락시키게 된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온갖 적폐의 오물장이며 특등범죄자들의 서식지인 《자유한국당》을 통째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반보수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다.

본사기자 엄 수 련

남조선에서 4.3인민봉기 70돐 범국민집회 진행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4.3인민봉기 70돐을 맞으며 3월 31일 제주시 청주벌에서 범국민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아직까지도 4.3봉기의 진실이 옳바로 밝혀지지 못하였고 공식적이고 정당한 이름조차 없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로동자들이 앞장에 서서 4.3봉기를 총칼로 짓밟은 진짜주범인 미국의 사과를 직접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집회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4.3봉기는 국토분렬을 거부하고 자주통일조국을 세우려는 민중들의 투쟁이였다고 밝혔다. 그들은 대학살을 감행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한 미국에 책임을 따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심각한 대기오염과 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어느 나라에서나 환경오염방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대기층에는 공장들과 자동차들에서 방출된 유해물질들이 수많이 떠돌고있다. 그것들은 지구와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있다. 세계적인 난문제인 지구온난화도 환경오염의 후과로 초래된것이다. 도시화가 촉진되고 자동차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해현상은 더욱더 심해지고있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인디아에서의 실태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대기오염물질인 PM2.5의 농도가 높은 세계의 20개 도시가운데서 인디아의 도시들이 절반을 차지한다는 자료를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한해에 공해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세계적으로 첫자리를 차지하는 등 대기오염이 최악의 수준에 이르고 그로 인한 후과도 막심하다.

많은 나라들에서 연료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가스와 먼지로 인해 PM2.5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수치를 훨씬 넘어서고있다. 그로 인해 주민들의 외출이 금지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고있다. 지어 도로들이 봉쇄되여 경제적손실을 입고있다.

대기오염문제는 농촌보다 도시에서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화석연료를 리용하는 자동차들의 무질서한 운행으로 방출되는 많은 량의 배기가스가 대기를 심히 오염시키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일부 나라들에서 연료자동차들의 대수를 줄이고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다고는 하지만 리기적목적만을 추구하는 생산업체들과 사용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하여 대기오염방지사업에서 개진이 없다.

결과 대기오염으로 도시생태환경이 심히 파괴되는것은 물론 인류의 발전과 생명안전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미쳐지고있다.

세계적으로 년간 약 900만명이 각종 공해로 사망하고있다고 한다. 그중 3분의 2가 대기오염에 의하여 사망하고있다. 원인은 야외뿐아니라 실내에서도 오염물질을 들이마신것으로 하여 심장질환과 폐암 등 질병들에 걸린데 있다.

보다 심각한것은 대기오염이 어린이들의 뇌발달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유엔아동기금이 보고서를 발표하여 이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인 PM2.5는 립자가 매우 작은것으로 하여 혈관을 통해 뇌에 쉽게 도달할수 있으며 거기서 염증을 일으켜 신경계통을 파괴함으로써 뇌발달의 기초로 되는 부분을 손상시키게 된다. 특히 뇌가 발달되는 단계에 있는 1살미만의 젖먹이어린이들을 비롯하여 나이가 어린 아이일수록 영향을 받기 쉬우며 그 후과는 일생동안 남아있을수 있다.

유엔아동기금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수치의 6배이상에 달하는 오염지역에서 사는 젖먹이어린이가 세계적으로 약 1700만명에 달하는것으로 보고있으며 그중 과반수가 인디아 등 남아시아지역에 집중되여있다고 발표하였다. 실지로 남아시아나라들에서 수많은 젖먹이어린이들이 환경오염에 의한 중독으로 뇌발육에 지장을 받고있다.

이것은 대기오염이 인류의 앞날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이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련방행정재판소가 디젤자동차의 주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일부 도시들에 도입하는것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다. 이것은 도시지역에서의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이란정부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중유 및 디젤유를 리용하는 발전소들을 천연가스발전소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그에 따라 2013년에 국내발전소들중 중유 및 디젤발전소가 45%를 차지하던것이 2015년에는 8%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천연가스를 리용하는 발전소들의 수를 계속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어느 한 나라의 주요도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탐식공기청정기를 세웠다. 탐식공기청정기의 높이는 100m이다. 탐식공기청정기는 오염된 대기를 흡수하여 온실로 보낸다. 온실에서 태양에네르기에 의해 가열된 대기는 여러개의 거르개를 거쳐밖으로 나간다. 탐식공기청정기에 의해 수개월동안에 도시와 가까운 교외나 부락의 10㎢지역에서 대기의 질이 개선되였다는것이 확인되였다. PM2.5의 농도도 평균 15%정도 줄어들었다고 한다. 이 나라에서는 앞으로 30㎢범위의 대기를 정화하는 대형탐식공기청정기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인류에게 있어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는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더욱 적극화될것이다.

정 원 준

일본 반투매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얼마전 일본이 중국의 철강재에 반투매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관세부과조치는 3월 31일부터 5년동안 중국산 철강재에 한해 41.8~69.2%의 관세를 부과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본사기자

평화를 파괴하는 대대적인 무기판매책동

얼마전 미국이 중동의 어느 한 나라에 대한 《토우》미싸일, 장갑차용에비부속품판매와 정비봉사제공에 동의하였다. 가격은 모두 근 11억US$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은 6 600기의 《토우2B》미싸일과 함께 추가적으로 96기의 훈련용미싸일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지금 미국은 중동지역정세를 의도적으로 계속 격화시키면서 제 리속을 차리고있다.

미국의 무력침공으로 만신창이 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의연 복잡한 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각이한 무장세력들이 반정부활동을 맹렬히 벌리고있다.

수리아에서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소탕작전이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어 정세가 한결 완화되여가고있지만 아직까지 정온은 깃들지 못하고있다.

정세가 불안정하고 각양각색의 무장조직들과 테로분자들이 활개치고있는 이러한 중동에 미국은 무기들을 계속 팔아먹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무기판매가 《지역내의 안보개선과 정치적안정 및 군사적균형보장》을 위한것이라고 선전하고있다.

외신들이 현재 전쟁과 분쟁으로 포연이 짙은 곳에서는 례외없이 수많은 미국제무기들이 사용되고있다고 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올해에 들어와 발표된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미국의 무기수출총액은 약 810억US$에 달하였다.

국제대사령이 무분별한 무기밀매가 인간살륙을 촉진시켰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보고서는 지난 시기 이라크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대량적인 무기판매가 각이한 이슬람교극단주의테로조직들을 산생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할 때만도 약 65만t에 달하는 탄약들이 주인도 없이, 아무런 안전대책도 없이 나라 전역에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중동지역에 분쟁과 무장충돌의 불길을 지펴놓은것도 미국이고 여기에 키질을 해대며 망탕짓을 하고있는것도 미국이라는 분석이다.

무기판매를 통해 여러 지역에서 힘의 불균형과 무장충돌을 조장하고 간섭과 개입의 구실을 마련하자는것이 미국의 첫째가는 목적이다.

분쟁을 격화시킨 다음 이런저런 구실을 내대며 해당 지역에 미군무력을 전개하거나 그 지역을 군사적으로 가로타고앉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인 침략수법이다.

미국의 책동은 많은 나라들의 비난과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 이란외무상은 중동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가 분쟁을 부채질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미국이 중동에서의 분쟁을 리용하여 저들의 무기수출량의 약 절반을 지역에 들이밀고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부분의 무기들이 전쟁범죄에 말려든 미숙하고 모험주의적인 지도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지금 국제사회는 중동정세가 복잡해지고있는것은 이 지역의 풍부한 전략자원을 독차지하려는 미국이 침략과 간섭책동을 강화하고있기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이 세계민심의 요구를 거역하고 리기적인 타산만을 앞세우면서 잔뾰를 부린다면 더 큰 국제적비난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승 걸

7-81054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편집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